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2 | No. 27



相千年老恒藏也
物一生異不賣者
舒川文化院長 辛山崔明奎



표지

桐千年老恒藏曲 梅一生寒不賣香(등천년노항장곡 매일생한불매향)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곡을 간직하고 매화는 평생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최명규 서천문화원장 / 전 한국예총 서천지회장 / 현 대한민국 예술문화 명인

충청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2 | No. 27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문

전 문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은 도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남 도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이며, 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해 내는 존재입니다. 이에 도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합니다.

본 문

제1조(문화향유접근권) 충남도민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 시설과 공간,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조(문화예술교육권) 충남도민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고 '삶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3조(문화표현자유권) 충남도민은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창작 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누려야 합니다.

제4조(문화다양성 보장) 도민과 충청남도에는 지역, 연령,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러한 문화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5조(충남의 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도민과 충청남도에는 문화시설, 전통문화유산, 문화행사와 축제 등 문화 및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충남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충남의 문화공동체 지원) 도민은 문화 창작과 향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고,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7조(충남의 문화역량 신장) 충청남도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문화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제8조(문화 협치)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충남의 문화권 실현을 위해 협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문화 협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9조(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의 참여) 도민은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제10조(평가와 의견수렴)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문화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도민의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문화권 신장을 위한 의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민은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어야 하며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문화를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제12조(문화격차 해소) ‘함께하는 문화’ 실현을 위해서 충청남도도와 도민은 서로의 표현과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과 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3조(문화재정 확보)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이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충남도민 문화권 선언이 도민의 삶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남도민 문화권리를 선언합니다.

2020. 10. 29.

도민대표단 일동

Contents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2 | No. 27

테마기획: 향토문화 | 06

2000년 역사를 품은 직산현 관아

구국의 도시 아산

간척의 오랜 역사와 근·현대 간척사의 생생한 현장 기록

충청남도 구석구석 | 20

천안 타운홀을 소개합니다

따릉이 타기 좋은 길 - 제민천 산책로

커피 향은 우정과 사랑을 싣고

충청남도 기념물 제 113호 신창향교

목인 숲, 해미를 품다

논산시민공원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청양의 명소 칠갑산 천문대로 오세요~

천주교 홍주 순교 성지

혼자만 알고 싶은 숨은 여행지 충남 안흥항

No.27 충남문화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유환동

편집위원 황의호 보령문화원, 권선옥 논산문화원, 정찬국 부여문화원,

김형기 온양문화원, 박은희 서천문화원, 정지수 태안문화원

기획 조남민

편집 김중호

행정 주혜원

발행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10호

TEL 041)635-9102~3 FAX 041)635-9104

디자인 대한인쇄사

※ 본 책자는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문화원 이야기 | 40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지구를 지키는 너랑 나”
보령문화원,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 성과발표회 열려
2022 문화가족 한마당잔치
간월도로 떠나는 우리가족 갯벌체험
논산의 가을, 논산문학제로 풍성
문화로 물들인 주말, “청소년컬처워크숍”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초청강연
“우리 지역 문화제는 내 손으로~~” 문화재지킴이
제23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성료
장승과 함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 대축제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며~
내 이름은 파비, 팝콘이죠
2022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개발과 간척사업으로 인한 주민 생활 변화’

생활문화 동아리 소개 | 64

꽃으로 웃음 찾은 ‘성골 들꽃사랑 동아리’
예쁜 실로 그리는 그림, 프랑스자수
먹으로 통하는 서예와 사람사이
논산문화원 시낭송날개달다 동아리
그라시아 클라리넷 앙상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면 - 숲꽃
서천 천아트 동아리
늘푸른악단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묵향 그윽한 힐링의 공간으로~ 묵향담은 우리그림
예빛아리무 무용단
계룡시 전통춤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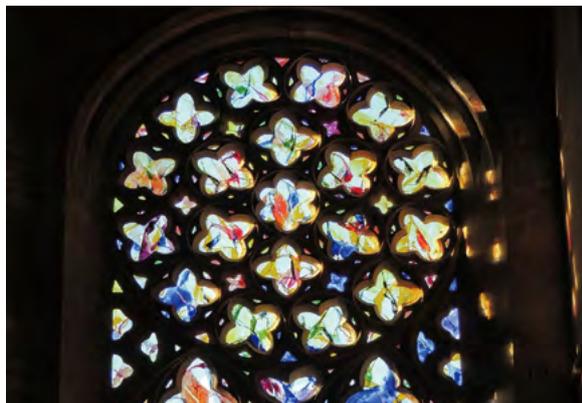
문화원연합회 소식 | 85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충남지역 예선 온양문화원 「도담푸리 무용단」 본선 진출!
제2회 2022 충남도민 문화의날 기념식 및생활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충남문화 학술발표회 개최
지속가능한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를 위한 화합의 축제
범충청권 생활문화 축제 4개시도 공동개최

지방문화원 소식 | 91

천안서북문화원 2022 민속예술제 “다시 우리의 것”
공주문화원 현대수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조옥순 공주문화원 부원장,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 대회 수상
보령문화원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 ‘2022 충남문화원상 대상’ 수상
논산문화원 권선옥 원장 당선
당진문화원 총절의 표상 남이흥 장군 재조명을 위한 학술 세미나 성료
금산문화원 제24회 창현회 한국화전
부여문화원 전국향토문화공모전 특별상 수상
정찬국 원장은 장관 표창 받아
홍성문화원 흥성을 빛내는 13인의 미술전
예산문화원 올해도 예산군 문화발전을 위해 빛났다
도지사상 등 4건 수상
태안문화원 제8대 고종남 태안문화원장 취임

문화원 발행도서 | 98



2000년 역사를 품은 직산현 관아

곽동석 천안서북구문화원

충청도의 관문 호서계수아문

직산현 관아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위치하며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42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 관아의 전형적인 건축물중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며 특히 호서계수아문은 관아문중 백미로 꼽힐 정도이다.

우리나라 관아 건물이 거의 없어진 것은 일제 강점시기에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고 지방관아 건물을 없애고 식민교육과 통치에 필요한 학교, 경찰서 등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직산현 관아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것은 참 다행이었다.

직산현 관아는 외삼문인 호서계수아문과 객사 그리고 내삼문, 외동헌, 내동헌이 있다. 외동헌은 현감이 업무를 보는 건물로 관아의 핵심건물이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헌이다. 현감은 종6품으로 지금의 지금의 면장(사무관 5급)과 같은 직위이지만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지휘하였으니 가히 한 고을의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자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역대왕들은 직산에 관심이 매우 높아 태종을 비롯하여 세종, 문종, 세조와 인조, 현종, 숙종, 영조 등 여가의 행차가 수십여 차례에 이른다. 이는 직산이 삼남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교통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호서계수아문 옆에는 영세불망비, 애민선정비 등으로 20개의 공덕비가 있으며 충청관찰사 민치상, 도 순찰사 김영순, 그리고 군수 손여성과 현감 이민기 등이다. 군수와 현감 공덕비는 직산현이 직산군과 직산 지군사로 승격되고 강등되고 하여 이해되나 관찰사와 도 순찰사 까지 공

덕비가 있는 것이 이례적이다. 공덕비는 보통 근무지 관청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공덕비를 살펴보니 직산 현감과 군수들이 고을은 작아도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강하고 청렴한 일면을 보니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직산 현지를 둘러 봐도 악덕한 현감, 군수가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다.

필자도 2007년 면장 부임 후 며칠 안되어 산아래 민가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날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여 재해구호비등 행정적 지원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와 나의 부덕함이 커져 불이 났으니 주민들이 고생하는구나 하고 밤새 잠을 이루고 못하고 모든 일은 주민을 위해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의 정신적 변화를 만들어 준 화재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면장이 이럴진대 시장이나 도지사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클까 생각하니 직산현 관아에 있는 공덕비를 세워준 현감들이 훌륭하게 느껴졌다.

백제 근원이 되는 누정인 제원루

1597년 왜군은 재차 조선을 침략하고 진주성과 전라도 지역인 남원성을 함락하면서 호남지역을 점령하였고 파죽지세로 충청도 직산 까지 올라 왔다. 왜군은 직산 전투에서 패하면서 퇴각시 제원루와 온조사당을 불태웠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원루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1476년(성종 7년) 이전에 건축한 것임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서거정(1420~1488)이 1476년도에 『삼국사절요』

를 편찬하면서 여러 가지 서책을 보니 직산이 백제의 첫 도읍지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제원루에 올라 감개무량함을 이기지 못하여 시를 남겼기 때문이다.

“제원(濟源)은 백제의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인데, 제원루(濟源樓)는 직산 관아 뒤편에 있었다. 직산관아에 오는 날은 어김없이 제원루가 있던 곳에 오는데 그동안 직산관아에 들렀던 세종대왕을 비롯하여 여러 제왕과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서거정 그리고 조선시대 4대 문장가 중의 한 분인 신희 등 많은 문무백관이 다녀갔다고 생각하니 제원루 표지석에 더욱 애착이 가졌다. 그리고 왜군에게 불타 없어진지 400여년이 지나도록 제원루 방치에 대한 후손의 죄책감이랄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필자에게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도 제원루 복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복원하여 백제의 첫 도읍지 상징물 중의 하나인 제원루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백제시조 온조왕 사당

2010년 공주·부여에서 세계 2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세계 대백제전 행사시 “백제 혼불을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공주, 부여, 서울 송파구에서 한 후 부여에서 혼불을 합친다”라고 하였다.

당시 필자는 충청도청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대백제 추진위원회 관계관에게 전국 유일하게 실존하는 위례산성이 있고 『삼국유사』,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역사서에 고려에서 조선시대 까지 백제의 첫 수도가

직산으로 되어 있는데 직산은 왜 하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 하였다.

대백제추진위원회에서 직산 혼불 채화에 대한 미온적인 답변은 들은 필자는 즉시 당시 천안시장에게 전화하여 도지사에게 백제 혼불 채화를 천안에도 할 수 있도록 건의 하라고 알려 주었다

다음날 천안시장은 도청에 왔고 도지사실로 안내하면서 도지사 면담에 필자 역시 참석하였다. 도지사는 천안시장 건의를 받고, “도청정책협의체를 통하여 혼불 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장의 건의가 받아들여 천안에서도 세계대백제전 행사 혼불을 채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백제 건국 첫 도읍지였던 위례산성에서 천안시장이 칠(七)선녀와 함께 백제 혼불을 채화하여 공주, 서울 송파구와 함께 부여에서 혼불을 합화 하기도 하였다.

백제 혼불 채화 이후 천안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온조왕 사당 복원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천안시민과 향토사학자들이 힘을 모아 2015년 온조왕 사당을 복원하였다. 2000년전 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대백제 행사시 천안에서의 백제혼불 채화와 함께 정유재란 때 왜군에 불태워 없어진지 400여년만에 온조왕 사당 복원으로 지역과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탐방하고 있어 늦은감은 있으나 다행이다.

온조왕 사당은 세종대왕이 삼국의 시조에 대한 사당을 지

으라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신라시조 박혁거세는 경주에, 백제시조 온조는 직산에 그리고 고구려 시조 주몽은 평양에 건립하여 제향을 지냈다. 온조왕 사당은 1429년(세종11년) 직산에 건립하여 춘추로 왕이 향축을 내려 제향 하였던 것이다.

백제가 고구려와 같이 단기간에 성장하여 13년 후인 B.C.5년에 영토확장과 강력한 군사력은 더 넓은 평야와 육로와 수로의 교통 요충지인 한강 유역에 있는 한산(현재, 경기도 광주)으로 천도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을 뒤흔든 장렬왕후

1636년 병자호란은 비록 45일간의 짧은 전쟁 기간이었으나 그 피해는 일찍이 당해 보지 않은 일대 굴욕이었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후에 효종) 두왕자가 인질로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당하였다. 인조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몽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지러운 조선의 상황속에서 장렬왕후 조씨는 인조의 인열왕후 한씨가 죽은지 3년 후인 1638년(인조 16년) 한씨에 이어 두 번째 왕비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다. 장렬왕후는 1624년(인조 2년) 조창원이 직산현감으로 있을 때 관아 내동헌에서 탄생하였는데 아버지는 한원부원군 조창원이며, 어머니는 대사간 최철견의 딸인 완산부 부인이다.

장렬왕후(莊烈王后)¹⁾가 시련기가 온 것은 1659년 효종이 죽자 효종에 대한 복상문제로 서인과 남인간에 정치화 되면 서인데 즉 조선을 뒤흔든 예송논쟁의 시작이다

장렬왕후 조씨는 인조 계비에 이어 효종, 숙종, 현종 때까지 4대에 걸쳐 궁중의 어른으로 지냈으며, 1688년(숙종 14년) 64세를 일기로 창경궁에서 죽었고, 능호는 휘릉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조선시대 최대의 논쟁에 휘말리면서 수많은 관리들이 파직되어 유배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권력 유지를 위한 고관 대작들에 대한 실망으로 장렬왕후(조대비)는 하루도 편치 못했을 것이다.

아울러 백성들의 고통에 아랑곳 하지 않고 1년복이니 3년복이니 하면서 15년간 논쟁을 이어간 관료들에게 궁실의 어른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며 호통치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아뭏든 이 시기에는 예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예학의 극성기라 하지만 필자의 가슴에는 대기근과 역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무시무시한 국가적 재앙 속에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조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당시 국가 안위와 백성들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예법을 명분으로 오로지 권력에만 눈이 먼 관리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직산은 제원루, 온조왕 사당 등 20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이며,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동안 관아로서 주민과 격리되어 홀로 살아오다가 잃어버린 전패를 찾아라,²⁾ 추억의 달빛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행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장소로 탈 바꿈하고 있다.

앞으로 호서계수아문, 온조왕, 장렬왕후 등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지역의 역사를 알고(知) 지역의 특산물인 거봉포도를 먹으며(食) 시민들에게 감동의 추억을 각인(印) 시키는 지식인(知食印) 역사문화축제로 거듭나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 『정조실록』 『직산현지』.
- 『조선왕조실록을 보다 (인종~순종)』, 2015, (썬리베르).
- 천안시지편찬위원회, 1997, 『천안시지』.
-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 1649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대비가 되어 조대비로 불렸으며, 1651년(효종3년) 자의(慈懿)의 존호를 받아 자의대비로 불렸다.

2) 전패는 조선시대 각 고을 관청에 왕을 상징하는 전(殿)자를 새긴 나무패인데, 1791년(정조 15년)에 직산현에서 발생한 전패 분실사건을 프로그래밍하여 여러팀으로 나누어 미션 수행을 통해 찾는 게임이다.

구국의 도시 아산

홍승윤 온양문화원



만전당 홍가신 영정

충남 아산시의 현충사 인근에는 황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는 '큰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현재는 바로 지척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서 지형이 크게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한적한 농촌마을이었고 행정구역상 염치읍 대동리이다. 이곳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산의 위인 만전당 홍가신의 기념관이 건립되어있고 그의 사당과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은 조선 중기의 인물로 수원부사, 개성유수,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었다.

홍가신의 유허에서 서쪽으로 야트막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현충사가 자리한다. 현충사는 누구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사당으로 충무공의 발자취와 숨결을 찾아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또 온 겨레의 존숭에 부족함이 없도록 장엄하게 조성되어 있다. 임진년으로부터 장장 7년여의 전쟁 참화는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에 결국 극복할 수 있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평범한 무장 중의 한 사람으로 마칠 수 있었던 수군장수가 우리 민족사에서 역사적 위인으로 추앙받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홍가신은 유학에 깊어서 책장을 넘기고 시문을 짓는 백면 서생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홍가신은 나라를 구한 공로가 평가되어 청란공신으로 책봉된 인물이 되었다.

선비 홍가신이 칼을 쥐고 활을 쏘게 되는 일은, 역시 충무공과 같은 시기 임진왜란 때의 일이었다. 당시 홍가신은 홍주(지금의 홍성) 목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조선 개국이래 약 200년의 평화로움은 조정을 비롯한 나라 전역에서 안일함을 초래하였고, 미증유의 전란에 온 국토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다름 아닌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만백성의 아버지로 군림하던 임금의 백성들을 도외시키고 야반도주하여 멀리 의주로 피신하

았던 것은 배신감에 분노한 민심을 돌아서게 하였다.

충청 내포지역은 한양도성을 향해 진격하는 일본군의 전략에서 임진왜란 초기에는 직접적인 전선(戰線)을 피하였으나, 의주에 있는 조정으로부터 끝없는 군량의 공출에 시달려야 했으며 혼란기에 더욱 기승을 부린 관료의 부패함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또한 전쟁이 장장 7년여 장기화되는 동안에는 명나라로부터 참전한 군량미와 군마의 말먹이까지 조달해야 하는 고충이 매우 커서 기아와 혈벗음에 시달렸다.

임금과 조정의 무책임한 도피와 일본군의 침범과 노략질에 따라, 이에 삶의 터전이 붕괴된 백성들의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란의 봉기가 속출하게 된다.

그중 부여지역을 기반으로 봉기한 이몽학은 본래 왕실의 서얼 출신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아 나름의 공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혼탁한 조정 관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데 크게 격분하게 된다. 끝내 '부패한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며 농민군을 일으켰으니, 들끓는 민심은 삼시간에 규합되어 600명의 농민군이 나흘 만에 5,000명으로 불어났다.

이몽학은 속절없이 무너지거나 무책임하게 도망치던 관군에 비해,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에게 치명상을 입혀 큰 명망을 얻고 있던 홍의장군 곽재우, 호남의 호랑이 김덕령 장군을 거명하며 함께 합류하기로 하였으며, 명망 있던 병조판서 이덕형까지 뜻을 같이 한다는 날조를 퍼뜨려서 세력을 크게 동요시키고 백성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홍산을 비롯한 임천, 청양, 대흥의 현감과 군수는 대항은 커녕 도망치거나 심지어 반군에 투항하는 자도 발생하였다. 고을을 지날 때마다 농민들은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



고 꿩이와 낮을 들고 합류했으며, 심지어 현역 군관들까지도 수백 명이 모여들었으니 반군의 기세은 하늘을 찔렀다. 불과 수일 만에 호서 일대는 이몽학으로 천하가 바뀌고 있었다.

임진왜란의 개전 초 왜군의 침입 사실을 겨우 나흘 후에나 파악한 조정이었다. 늦게나마 대대적인 군사를 모아 토벌군을 파병하고자 할 때, 당대 명장 이일 장군의 휘하에 모인 사람이 불과 30명이라는 사실로 비추어 전국을 비롯한 호서지역의 민심 또한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홍주는 호서지역에서 가장 큰 고을이었고, 서해의 관문이요 태안반도의 해로를 거쳐 중국을 왕래하는 요지였다. 만일 서부 일대의 교통 중심지였던 홍

주가 무너진다면, 세력이 속속 확대되는 반군의 기세는 곧바로 천안과 수원을 경유하여 한양 도성으로 진격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홍주는 '인후(咽喉)' 즉 조선의 목구멍과 같다고 여겨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홍주성에 상주하는 경비군사는 일백 명이 채 안되었고, 반면 나날이 불어난 이몽학의 반란군 세력은 이미 일만 명에 이르렀다. 반군의 기세 앞에서 도망치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관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들은 백성들은 곧이어 닥칠 홍주성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고압적이던 위정자들은 제 살길 찾아 가솔을 데리고 도망을 준비하기에 바빴고, 평상시 흉폭하게 백성의 고향을 쥐어짜던 아전들은 자신의 가족을 미리 피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홍가신 영당

신시키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목사 홍가신은 '나라를 지키는 신하의 도리는 성을 지키다 죽는 것이며, 명을 받고 이 땅을 지키는 내가 어찌 떠나겠는가?' 하면서 도리어 당시 아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들여와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민관군은 점차 안정을 찾고 인근 충청수영성과 관리들의 합심으로 결연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사기는 출중하였지만 명분과 결속이 취약했던 이몽학의 반군은 홍주성에서 대치하던 중, 속속 합류하는 지원군과 내부 반란에 지리멸렬하게 되었고 결국 진압되기에 이른다. 만일 홍주성마저 함락되었거나 성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면, 전쟁 중의 조선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지 모를 일대 변란이었다. 뛰어난 목민관의 참다운 애국관과 배우고 닦은 학문에 대한 올곧은 실천으로 절체절명의 나라를 구하게 된 홍가신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깨달아야 할 바가 정말 많기만 하다. 그런데 이몽학의 난이 평정된 이후에 개탄을 금치 못할 사후처리는 깊은 상처를 입은 호서지역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금을 뿌리면서 괴로움을 안기었다. 반란에 동조한 이를 색출한다면서 수백 명을 치죄하였고, 반역의 고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고초를 안기었다. 한편 반란군의 세력 규합을 위해 이몽학의 세치 혀로 거명된 이덕형은 무려 40일을 무릎 꿇고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고 광재우마저 큰 위협에 빠져 곤욕을 치렀으며, 호남

에서 왜군들을 떨게 하였던 총장공 김덕령은 고문 끝에 장살되었다.

한중도 안되는 조정의 편협함과 백성들의 비참한 실상을 아랑곳 않은 당시의 한심함이었다.

임기를 다하여 홍가신이 홍주를 떠나자 홍주 인근에서는 기근과 전염병까지 만연하여 척박한 삶이 더욱 모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 홍가신의 선정과 용기를 그리워하며 홍주의 진산인 백월산에 홍목사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제를 올렸더니, 희한하게도 병이 낫고 농사에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나라님과 나리님들이 모두 저버린 백성들에게 홍가신은 곧 어버이였고 산신으로 모시어 위안을 주고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현재까지도 홍성군에서는 홍가신을 추모하는 제의식을 거르지 않고 있으며, 백월산 정상에는 산신각에 조각상이 모셔있다.

당시에 떨지 않은 아산이라는 고장에서 살아있는 실존인물을 산신으로 모신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목민관이 지켜야 할 자세의 모범이자 학문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제시되는 만전당 홍가신의 발자취에서 깊이 성찰하여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닐 수 없다.

홍성군에서 산신으로 모시는 홍가신이다. 아산에서도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을 숭고히 수행한 목민관 홍가신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후손들의 귀감이 되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각 고장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경쟁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억지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생애와 해당 도시의 연관성이 적은 인물까지도 편입시키는 사례도 있고,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인물의 선양사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아산시의 경우에도 각종 매체는 물론 가시적인 전시물과 동상의 건립을 통해 아산의 인물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아산의 역사성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아산시의 중심이랄 수 있는 온양온천역은 내외 방문객이 가장 많은 장소임을 감안하여 외벽에 '아산의 인물'을 돌에 새겨서 장식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총무공 이순신을 필두로 고불 맹사성, 토정 이지함, 장영실을 조성하여 그들의 간략한 치적과 함께 게재하여 놓았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우리 아산에서 태어난 분은 한 사람도 없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 지역의 인물로 중복되어 선정한 사례까지 있는 실정이다.

이분들은 모두가 지명도가 높고 후손에게 귀감이 될만한 인물임은 자명하겠지만, 적어도 선영이 모셔있다거나 아산지역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겼을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결례되는 일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주지하다시피 총무공 이순신 장군은 서울에서 탄생하였지만 유년시절부터 아산에서 생활하면서 무과시험을 준비하였고, 현충사라는 대표적 사당이 현존함과 동시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아산의 인물임에 이론이 없다.

한편, 만전당 홍가신의 경우에는 아산에서 태어나고 아산에서 말년을 맞이하며 묘역까지 조성된 분이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동시대에 공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과는 사돈이라는 특수한 인적관계까지 맺고 있을 정도로 두 분의 고택은 지척에 있다.

전란이 끝난 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 즈음, 7년간의 전쟁을 극복하는데 대한 공신을 책록 하는 과정을 치르게 된다. 선조 임금은 선무공신 18명, 청란공신 5명, 호성공신 86명을 선정하여 치하하였다.

목숨을 바쳐 왜군을 섬멸하고 강토를 지킨 이는 고작 18명! 의병은 그의 안중에 없었다.

내란을 평정하여 나라체제의 전복을 막아선 공신은 5명. 그런데 의주까지 자신을 호위하며 뒷바라지 한 사람들은

자그마치 86명이나 공신이 되어 크게 부각시켰다.

물론 임금의 피난길에서도 호위병의 도망자가 속출하였고, 모두 굶는 과정에서 임금보다 내입이 먼저였던 참담함을 겪은 임금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을 것이다.

또한 전후에도 모든 전란이 끝나고 조정의 무탈함을 지켜준 것은 오로지 명나라의 은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선조로써는 명나라에 읍소하여 원병을 데리고 온 이들이 구제주와 다름없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호성공신 86명 중의 하나면서 2등 공신으로 책록된 정희번(鄭禧蕃 1543~?)의 공신교서가 온양 정씨 문중으로부터 세상에 나왔고 아산시에서 기탁하여 충남역사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역사적 인물로 공로가 선양되지 못한 탓에 일찍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서 2등 공신임에도 아쉬움이 크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은 일본의 관백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 야욕에 의한 전쟁이었고, 명나라가 일부 참전하여 일진일퇴하였던 인류 역사와 우리 한반도 역사상 많고 많은 전쟁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동북아 삼국이 참전한 대규모 국제전쟁이었으며, 당시 인구 6000만 명의 명나라와 1000만 명의 일본 그리고 600만(천만을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서로 인해 실제로는 약 100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설도 있음)의 대규모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장터가 조선땅이었고, 군사를 포함하여 20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7년동안 초근목피로 연명한 지옥 같은 기간이었다.

이 전쟁으로 명나라는 과도한 참전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기울었으며, 일본 역시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의 종말로 귀결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순신은 선무공신 1등, 홍가신은 청란공신 1등, 정희번은 호성공신 2등의 활약을 하였던 인물들이다. 이순신과 홍가신의 교서는 국가보물로 지정된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아산은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미증유의 대참화를 딛고 나라를 보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배출한 고장이요, '구국의 도시'라고 일컫는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역사 도시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우리 고장의 인물을 부각시키는 일이 실제 이상 과포장할 이유나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인물들의 후손들이 딛고 사는 터전에서 그분들의 공로와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하고 올바르게 인물 규명에 나설 때 자라나는 후손들의 귀감이 될뿐더러, 아산을 찾는 이에게 아산이 갖고 있는 역사의 혼과 숨결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 허다하며, 미소 띠는 밝은 내용보다는 가슴 먹먹하거나 숨 가쁜 일들이 만연하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가던 그 시절 역시나 번다한 하루하루였을 것이다. 그분들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대하고 후손들을 훈육하였던 정신을 본받고 싶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도 울곧게 지켜낼 수 있고 온전하게 잘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태안군 이원면 이원방조제(©태안문화원)

태안 주민들은 태안반도가 낙지 모양의 지형이라고 말한다. 태안읍이 몸통이고 사방으로 낮고 좁은 구릉이 바다로 길게 뻗은 지형을 빗댄 말이다. 각 지역을 잇는 도로는 능선을 따라 뻗어 있다. 걸어서 이동하기도 하지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편할 때도 많았다.

낮은 구릉에는 군데군데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종종 도로 양쪽으로 바다가 내려다보이기도 한다. 가옥은 도로와 바다 사이 완만한 경사지에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갯벌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낙지와 조개를 채취하였고, 소금을 구워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때로는 간척을 했다. 태안에서는 아들이 결혼하면 집과 함께 약간의 농토를 물려주는데, 분가한 아들은 주변의 숲을 일구고 갯벌을 메꾸어 논과 밭을 넓히는 것이 이 지역의 상속관행이었다.

사람들은 태안군의 간척사업의 경우, 1984년에 준공된 천수만의 A·B방조제 또는 2009년 준공된 이원방조제 정도를 알고 있다. 그러나 서·남해안에서 바다의 간척은 항상 있었던 일이다. 강화도는 대몽항쟁기부터 섬과 섬 사이를 막는 등 꾸준하게 간척이 이루어졌다. 섬 전체 면적의 1/3 정도가 간척평야일 정도이다. 태안반도에서도 원을 막는 일은 흔했다.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기 했지만, 때로는 혼자서 또는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과 함께 재

원을 모아서 '원[堰]'을 막아서 농토를 넓혔다. 간척을 해서 마련한 몇 마지기 땅은 측량도 하지 않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데 '원뚝[堤防]'을 막았다고 해서 곧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가 죽지 않을 정도로 '간기[鹽分]'가 빠지려면 최소한 4~5년은 기다려야 했다. 수로를 만들어 간기가 씻겨 나가도록 했고, 산에서 흙을 실어다가 복토를 하기도 했다. 간기가 심하지 않아 보이는 육지 가까운 곳에 시험삼아 심어서 비가 자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원뚝을 막으려면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 자본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은 원뚝을 막은 후에 농사를 짓기도 전에 원뚝 안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조사에 응했던 소원면 송현리 이은형은 1970년대 숙부와 아버지를 포함한 친족 3인이 간척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 1972년 숙부가 이웃 주민을 인부로 고용하여 '단 조금', 즉 조금 전후의 15일만에 흙으로 원뚝을 쌓았으나, '장벌에 소똥이 뜨는' 10월 사리에 뚝이 터지면서 실패했다고 한다. 바닷가에 소를 풀어서 키우기도 했는데, 사리 때 물이 많이 들면 소똥이 뜬다는 이야기다. 이듬해 친족 3인이 돈을 모아서 돌을 쌓아서 보강한 끝에 120마지기를 간척했다고 한다.



원북면 이곡리 간척지(©태안문화원)

일제강점기 이후 외부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울산 출신의 송태관은 태안읍과 근흥면 사이의 만(灣)을 막아서 약 100만평 규모를 간척했다. 주민들이 '서풍농장'이라 부르는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에 거주했던 이병수가 1939년 근흥면 도황리와 정족리 사이를 막아서 간척했던 약 28만평 규모의 '안흥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원뿔을 막을 토사와 바위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한 진술도 있었다. 인부들이 곡괭이로 산에서 토사를 채취할 때, 아래를 파 들어가면 윗부분은 지붕처럼 남게 되고, 마침내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게 된다. 곡괭이질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는 궁여지책인 것이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어장넘긴다'고 한다. 본래 "금광에서 밑부분을 파낸 장벽을 위에서 충격 주어 넘어가게 하다."는 뜻으로 쓰였던 용어였는데, 간척공사 인부들도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다. 어장넘길 때 위의 토사가 무너지기 전 흙이 부슬부슬 흘러내리는데 이를 '이슬내린다'고 했다. 이슬이 내리기 전에 작업하는 인부는 피해야 한다. 이 또한 광산에서 쓰던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 용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해방 후에도 외지인이 투자 목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간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도 평택지역의 어촌계장들은 자본금을 모아서 태안읍 도내리와 어은리에서 간척사업을 벌여서 성공했고, 경기도 연천군 전곡 출신의 투자자들은 원북면 청산리와 태안읍 삭선리 사이에 원뿔을 막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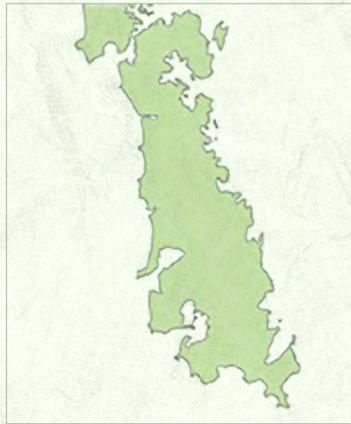
다. 1960년대 초반 충남 예산군의 부호가 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속칭 '아구리선'에 장비를 싣고 와서 소원면 의항리에서 간척을 했던 사례도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에서 피난민을 정착시키려고 간척사업을 추진하다가 제방이 여러 차례 유실되면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근흥면 도황리와 마금리를 잇는 공사였는데, 제방 중에 유실된 곳은 지금도 '터진 목'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간척사의 한 획을 긋는 천수만 간척공사를 보았던 사람들과의 면접조사도 이루어졌다. 당암리에서는 간척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한 증언도 청취하였다. 간척사업 진행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상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급류에 제방 40m가 유실되었던 사건, 간척사업 준공 후 주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그 이후의 변화과정에 대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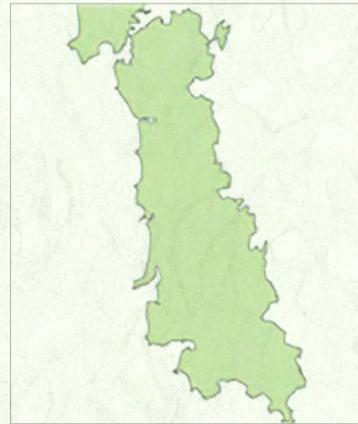
간척공사에서 트럭과 선박으로 토사를 운반했던 주민도 있었다. 장산리가 고향인 고윤현은 도내리 등 태안군의 여러 간척공사 현장에서 덤프 트럭을 운영했다. 도내리의 손종석은 가로림만의 구도항과 인천 사이를 왕래하는 여객선까지 주민들을 실어나르는 도선(渡船)을 운영했는데, 도내리에서 간척공사가 진행될 때는 도선으로 잡석을 운반했던 경험이 있다. 간척사업 인부를 대상으로 속칭 '함바집'을 운영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10년대 안면도 해안선-01
(©'일제강점기 안면도와 아소상점')



1960년대 안면도 해안선-02
(©'일제강점기 안면도와 아소상점')



1980년대 안면도 해안선-03
(©'일제강점기 안면도와 아소상점')

간척사업 전에 소금 또는 해산물을 잡고 외부로 팔았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당암리의 김명순은 선친이 소금 운반선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태안읍 도내리와 원북면 방갈리에서는 ‘살’을 매어서 고기를 잡았다는 증언을 들었다. 도항리 김영석은 둘째 누님이 조개젓을 팔아서 친정에 논 3마지기를 장만한 후에 혼인하였다고 했다. 해산물을 장에 내다 팔 때의 독특한 관행도 접할 수 있었다. 소원면 의항리 주민들은 생굴을 팔기 위해서 태안장을 갈 때, 전날 저녁에 곡식을 소량 챙기고 태안읍 장산리에 도착한 후 주인과 함께 밥을 먹고 이튿날 아침에 장을 봤다고 한다. 자신이 직접 가마에 불을 지펴서 소금을 구웠던 경험이 있는 주민이 없었음은 다소 안타까웠다. 증언을 하는 주민들은 다만 어릴 때 지켜보거나 어른들로부터 이야기였다

태안지역의 주민들은 반농반어의 생활을 한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도 농사는 대부분 자급을 위한 곡식 재배였고, 어로작업은 부업에 머물렀다. 해산물 유통망이 활성화되지 못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간척공사를 농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 따라서 간척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 감자’로 끼니를 해결했던 주민들이 간척지 논에서 수확한 ‘쌀로 밥을 해서 먹었다’는 증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간척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외부에서 ‘육답(陸畓)’보다 토지 가격이 싼 ‘간사지 논’에서 농사

를 지으려고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한편 간척공사는 도로망도 바꾸었다. 이전에는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갯벌에 돌을 박아서 썰물 때 가로질러 다녔다. ‘감질’이 그러한 이동로였다. 주민들은 ‘감 건너 다닌다’ 또는 ‘감 뛰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灣)을 가로지르는 원뿔이 조성되면서 원뿔이 새로운 도로가 되었다.

본 조사는 1980년대까지 이어졌던 태안군의 간척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실과 그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혹 조사자의 경험 부족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피면접자의 증언을 엉뚱하게 이해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해방 전후의 간척사업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자료가 분석된 경우는 드물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조사는 현대사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면접자 중에 지난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았고, 일부는 일기까지 쓰고 있었다. 향후 일기와 사진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여기에 공공기관에 보존하고 있는 문서 또는 신문 등을 더한다면, 태안의 간척사를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천안 타운홀을 소개합니다

이
슬
천안시 북대교동 문화원



천안 타운홀은 2021년도에 개관하였으며, 47층이라는 높은 층에서 천안 원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갤러리카페입니다.

천안 타운홀이 조성된 것은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 도시 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천안 타운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 타운홀은 옛 천안시청 자리(현 동남구청)에 자리하고 있고, 곳곳마다 천안 타운홀 안내표지판이 자리하고 있어 입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로 되어있으며, 힐스 에비뉴 103동 3,4라인

입구로 가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은 총 5개로 되어있으며 B1(지하주차장), 1층(상가), 23층(대피실), 46층(타운홀/회의실), 47층(아트홀/전망대&갤러리카페)입니다.

1층에서 4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은 약 50초쯤 되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으며, 천안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차를 마시며 타운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층고와 탁 트인 전망과 함께 화가 '모네'의 작품이 벽면에 걸려있는데 작은 미술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분



위기가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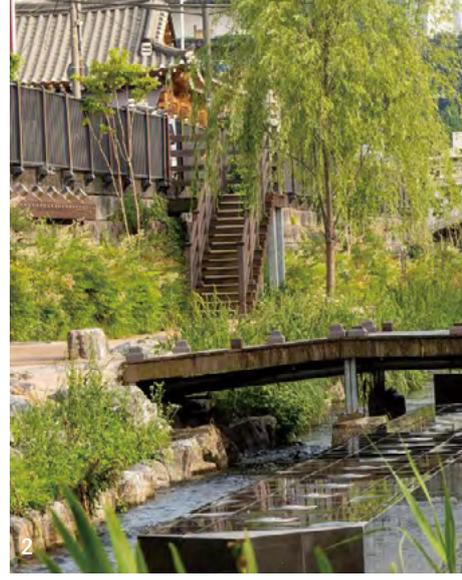
카페의 메뉴로는 커피, 라테, 에이드, 허브차, 국산차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있고, 일부 바닥에는 아래를 볼 수 있게 통유리로 제작이 되었는데 밑을 보니 고층에 올라왔다는 것이 다시 실감 나게 느껴졌습니다.

바깥에는 하늘이 뚫려있는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에는 온실 같은 좌석도 꾸며놓고 예쁘게 장식을 해놓아서 날씨가 좋을 때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 같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천안 타운홀은 낮과 밤의 느낌이 다른데 낮에는 환한 하늘과 함께 천안의 밝은 원도심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밤에는 원도심의 멋진 야경을 보실 수가 있어서 낮에 천안 타운홀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1918년도에 개설된 천안의 중심 시장인 천안중앙시장이 있어서 천안 중앙시장을 구경하시고 노을 질 쬐에 다시 천안 타운홀에 가서서 노을과 함께 맛있는 차를 드시며 야경까지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안의 원도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천안 타운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멋진 원도심을 보셨으면 합니다.

따릉이 타기 좋은 길



1. 제민천
 2.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출처: <https://www.gomaro.kr/article-view/79>>
 3. 자연과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제민천<출처: <https://www.gomaro.kr/article-view/134>>

나는 금방 질리고 또 금방 변덕부리는 성향이 있다. 그 한 예로 끝까지 본 드라마가 몇 개 되지 않는다. 보고 있는 드라마가 종방하기도 전에 다른 드라마로 철새마냥 이동했다가 또 그 드라마도 끝까지 보지 못한 일들이 허다하다. 월화드라마부터 수목, 주말드라마, 본방에 재방까지 리스트를 작성해 드라마를 달려 보듯 하는 내 친구는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변덕이 심한 나에게도 한 가지 꾸준히 좋아하고, 즐겨하는 운동이 있다. 바로 따릉이 타기. 따릉이는 내가 부르는 자전거의 애칭이다. 문화원 가까이 있는 제민천은 따릉이 타기에 아주 좋은 길이다. 또 자전거가 없는 나는 공주시의 따릉이를 많이 찾는다. 이렇게 곳곳에 나를 위해 제공해주는 손길이 고맙다.

우리 공주의 구도심을 관통해 남북으로 흐르는 제민천은 총 4.21km의 지방 하천이다. 또, 제민천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루치아의 뜰, 학생들이 많이 가는 중동오텍집이 있는 웅진로가 있고 왼쪽으로는 공주문화원, 공주성결교

회 그리고 빨간 우체국이 있는 대통길이 뚫려있다. 생각해보니 주중과 주말에 대통길에 오는 나는 1년 365일 중 대충 350일가량은 제민천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싶다.

10년 넘게 요리조리 구석구석을 후비고 다녔던 동네만큼, 절대로 길을 잃을 수 없는 곳에 환한 변화가 생겼다. 다리 밑에는 지역의 역사와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벽화들이 새겨지기도 했고, 칙칙하고 어두운 곳에서 뭔가 튀어나올 거 같았던 개울 주변엔 알록달록한 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제민천을 달리다 보면 동서를 잇는 큰 다리 말고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돌다리도 보인다. 여름엔 어린아이들이 이곳으로 나와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거기서 놀지 말라고 소리쳤을 텐데 지금은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고 돌다리를 스치며 흐르는 물소리도 좋다. 또 돌다리 말고 나무로 만든 다리도 많다. 하루는 돌다리, 하루는 큰다리, 은근 다리 골라 건너는 재미가 있다.

개울이 깨끗해지니 덩달아 개울 주변에도 변화가 생겼다.



4-5. 제민천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들과 제정비된 주변 가정집 벽들<출처: <https://www.gomaro.kr/article-view/134>>
6. 자연과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제민천<출처: 특급뉴스>

페인트가 벗겨지고 움푹움푹 패여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던 주변의 가정집 벽들이 매끈해지고 그 위에 예전 제민천의 모습을 알려주는 사진과 벽화도 그려져 있다. 아낙네들이 어린아이를 업고 빨래하는 모습, 아이들이 제민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 등 벽화들을 보며 따라다녀도 꽤 많은 시간을 달릴 수 있다.

제민천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좁다란 제민천을 사이에 두고 저마다의 느낌을 간직한 장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지금의 공주역사영상관이 된 구 공주읍사무소, 중동초등학교, 공주사대부고, 호서극장, 양조장(현 고가네 칼국수와 맛깔) 등이 개울을 건너다니며 생겼고 그 위로는 부설초등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시청 또 조금만 더 나가 중동성당,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이 언덕 위에 텅그러니 앉아있다.

그래서 사람과 장소를 연결해주는 장소,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장소가 바로 제민천이다. 제민천이 나무 기둥처

럼 가운데로 뻗어 있고 골목들이 나뭇가지처럼 옆으로 뻗어 있다. 이쪽 길로 나가면 이런 골목길의 풍경을 볼 수 있고, 저쪽 길로 뻗어나가면 또 다른 골목길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오늘의 깨끗하고 깔끔한 제민천의 모습은 2011년에 착공한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4차에 걸쳐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이미지 타일, 회전식 계단이 설치되면서 오랫동안 시민 곁에서 멀어져 있던 제민천을 가깝고 편안하게 쉬며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제민천은 특히 봄에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다. 특히 햇살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따릉이를 탈 때면 이 장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함을 느낀다. 어쩌다 만나는 강아지도 반갑고 몰래 숨어있다 도망가는 고양이도 숨은 그림찾기 하듯 재밌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관광지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정겹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의 시간이 좋다.

커피향은 우정과 사랑을 신고



김지영 보령대자연

커피의 종주국은 에티오피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곳곳에 커피 생산지가 많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탈레랑은 ‘악마같이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같이 순수하고 사탕처럼 달콤하다’ 라 말했다. 그래서 ‘악마의 음료’라는 별칭이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된 것은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에 머물 당시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가배’라 불리며 궁으로 돌아와서도 즐겼다고 한다.

커피는 열매를 어떻게 추출하여 마시는지에 따라 다르다. 드립 커피, 콜드 브루, 추출 커피로 나뉜다. 드립 커피는 열매를 볶아서 같은 뒤 거름종이에 담아 그 위에 물을 부어 걸러 마시는 것이다. 이 커피를 ‘원두커피’라고 부른다. 콜드 브루는 찬 물을 사용해 긴 시간 동안 추출하여 마시는 것으로, ‘더치커피’라 한다. 추출 커피는 기계를 이용한 것으로, 높은 압력과 온도를 이용해 추출했기 때

문에 완성된 커피는 에스프레소와 같은 고농축이 된다. ‘머신 커피’라 부른다.

창이 넓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의 향은 더욱 진하다. 눈이나 비가 오는 풍경을 고스란히 즐기도록 만드는 커피향은 마법과 같다. 지극히 개인의 취향이다.

커피 향은 아름다운 자연을 무심하게 바라볼 때도 좋다. 더구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더 즐거운 것은 커피가 가져다주는 매력이다.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면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찾아서 즐길 수 있다.

최근 보령에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 보령 미산에 자리한 <오소리 커피 농장>이다. 시내에서 찾아가는 방법은 무궁화 수목원,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을 들렀다 가도 된다. 남부 쪽에서는 보령댐을 즐기다가 오면 된다.

<오소리 커피 농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대식물로 외부정원이 조성되어진 커피체험농장이다. 커피에 관하여 종합적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과 SNS를 통해



소문은 파다하다.

비닐하우스 농장 안에서는 커피의 원재료인 커피체리와 파파야, 패션 후르츠 등 열대 작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어린 커피나무부터 빨간 열매가 달린 커피나무까지 있다. 둥근 빨간 열매가 참 예쁘다. 그리고 커피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열대 식물의 다양성도 볼 수 있다.

여행은 막연한 것을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듯이 커피 열매를 사진과 귀로만 보고 들었던 것을 직접 보게 된다. 우물에서 승냥을 찾는 격이지만 향기로운 커피 향도 맡아지는 느낌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먹을 것 싸들고 나들이하기도 좋은 장소이다. 그리고 5월에서 7월까지 오소리리를 관람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커피 체험하고 오소리도 보고 엄마 아빠는 커피를 마시면 된다.

또한 농장 안 곳곳에 커피 원두와 찌꺼기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물론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체험실은 커피 판매와 함께 로스팅 되는 과정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맛의 커피 원두가 전시되어 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한 잔의 커피로 탄생하기까지 원두, 가공, 로스팅, 분쇄, 추출 등 많은 단계를 거친다.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다.

성주산 자락을 배경으로 인공정원이 꾸며져 있고 분수도 갖추어져 있다. 추운 겨울에는 실내에서 커피 향을 즐기면 된다. 따뜻한 계절에는 실외로 커피 한 잔씩 들고 정원을 거닐면서 음미해도 된다. 훌륭한 성주산 풍경도 한몫 단단히 한다.

예쁜 정원을 거닐며 기억에 남는 사진을 남겨도 된다. 오소리 커피농장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식물의 세계화였다. 식물이 자라는 조건이 맞으면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커피는 열대지역에서만 자란다는 편견을 깬 농장이었다.

우리들의 우정과 사랑을 위하여 한 잔의 커피를!

충청남도 기념물 제 113호 신창향교

김형기 연구비서



- ◆ 지정년월일 : 1997년 12월 23일
-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북남로 840번길 29
- ◆ 수량 : 5동
- ◆ 재료 : 목조와가
- ◆ 시대 : 조선

아산에는 3대 향교가 있다. 아산향교, 온양향교, 신창향교가 그것이다. 그중에 신창향교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초등학교 교정내에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읽는 소리가 연일 들리는 곳으로 조선시대 이곳 신창향교 앞에도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가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신창향교는 온양에서 예산방면으로 연결되는 45번 국도를 따라 약 8km를 가면 도로변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창초등학교의 교정내에 있다. 창건연대와 변천사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조선 숙종조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불확실하며, 1872

년(고종 9)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다는 설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창현 학교조에서 향교의 위치를 본현 북쪽 2리 지점으로 밝히고 있는 점(현존 향교의 위치와 일치)을 고려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1872년 신창현감 왕경렬이 도고면 석적곡의 진주사를 이긴하여 설립하였다는 설은 향교의 창건은 아니고 진주사의 석재들을 옮겨서 향교를 보수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 현재 신창향교는 대성전에 오성과 송조이현 및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신창향교는 신창초등학교의 교정내에 있는데 해발 184m의 학생산 동편산록 경사면에 동남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향교의 건물배치를 살펴보면 위쪽에 대성전이 있으며, 내삼문·명륜당의 사이 양편에 위치하고 있고 이상의 대성전



1. 신창향교 전경
2. 신창향교
3. 신창향교 대성전
4. 신창향교 명륜당

과 명륜당 동·서 양재는 담장으로 에워싸여 있다. 명륜당과 홍살문 사이는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삼문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건물의 규모는 대성전 31평, 명륜당 18평, 동재 15평, 서재 13평, 관리사옥 18평이다. 이중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며 익공 양식으로 가구 하였다. 시멘트로 구축된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주를 세웠다. 전면의 좌우 측면에는 중방하에 격자문의 창문을 설치하였으며 중아 3간에는 각각 2분합의 격자문을 시설하였다. 창방 위에는 화반대 공을 하나씩 놓아 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처마 측면에는 벽을 보호하기 위한 방풍판을 설치하고 중방하에 반담을 시설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막돌 허튼층쌓기로 구축한 기단 위에

거칠게 다듬어진 방형의 초석위에 원주를 세웠다. 기단과 창방 사이에는 고맥 이와 함께 하방 중방 인방을 가구하였으며 전면의 좌우 측면은 4분합의 띠살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중간 3칸은 중방위에 창문을 설치하고 어간의 처마 밑에는 명륜당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처마는 홀처마로 도리식으로 가구 하였다. 건물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소장 전적으로는 홀기 6종등 몇권의 시문집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조선 후기 이래 향교는 교육 기능이 쇠퇴하고 대신 선현에 대한 제향을 통한 교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신창향교도 시대의 흐름에 밀려 현재는 신창향교는 전교 1명과 장의 30명 그리고 유림회원 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목인 숲, 해미를 품다



해미(海美), 이름도 예쁜 이곳은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작가의 고향이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는 해미읍성과 해미 국제 성지가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벚꽃 피는 4월이면 해미천 변의 산책로는 환상적인 설렘을 선물하기도 한다. 작가의 추억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과거, 공방을 운영하며 지역의 예술 활동을 통해 전시, 축제에 참여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재, 꿈을 향해 희망의 날개를 펼칠 미래를 위해 여기 해미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

특히 먹거리가 풍부하여 맛집도 많은 곳에 예술 하나 더 추가하면 문화적으로 손색없는 아름다운 고장이 되리라는 생각에 해미 전통 시장 안에 ‘목인, 숲’ 공방을 마련했다.

읍성 앞 안내판이 있는 곳이 어린 시절 집터이고 성안에 있던 초등학교에 다니며 행복했던 추억이 있어 더 애정이 깊은 것이 사실이다.

해미읍성은 서산시 9경 중 1경으로서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기념품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을 고민하다가 조선 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둘레에 심었던 탱자나무의 탱자꽃을 모티브로 한 ‘해미읍성 탱자꽃 목걸이’가 탄생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한 호야 나무의 나뭇잎을 모티브로 ‘해미읍성 호야 목걸이·팔찌’를 만들게 됐다. 이런 의미를 담은 관광상품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공방의 위치가 읍성과 거리가 있고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 있다보니 오시는 분들이 아깝다며 걱정을 해 주기도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번 오신 분들이 소개도 해 주시고 직접 SNS를 통해 공방을 알리고 작품과 상품들을 소개하다 보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송도, 세종, 내포, 당진, 서산 등 먼 곳에서 주문도 하시고 직접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있어 뿌듯하다. 어느 고객은 “작가님의 핸드메이드 작품을 선물하면 너무 좋아해서 멀어도 일부러 시간 내서 오는 거예요.”라고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어깨가 으쓱하고 힘이 생겨 운영이



월요일 휴무

open 오후 1시

close 오후 7시

예약 및 택배 가능

문의 : 010-4934-0448

목인 김영주

서산 해미 출생

목인, 숲(아트·칠보·수공예 공방) 대표

칠보공예 지도사, 장신구 연구가, 시 등단

2022 제14회 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 환경 예술대전

(칠보공예 은상, 입선 수상)

2012 서울국제미술협회 한일교류전 입선(동경도 미술관)

2020~2022 해미문화예술협회 회원전 "치유의 숲"

(해미행정복지센터 갤러리)

2017~2018 내포미술협회 전국 작가 초대전(충남도청)

2017 한국미술 조망전(인천 갤러리 지오)

2012 국제 해양환경을 위한 공모전 추천작가 전시

(서울시립경희궁 미술관) 외 단체전 다수

좀 어려운 시기에 희망적인 에너지가 손을 더 바쁘게 한다. 또 다른 분은 "칠보는 너무 올드해서 싫어했는데 작가님 작품은 모던하고 세련돼서 좋아하게 됐어요."라고 하면 너무 고맙고 기뻐서 더 연구하고 싶어진다.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고 착용했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장신구 수공예를 잘했다 싶다. 그것이 바로 작가가 추구하는 생각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자연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여성들이 장신구를 착용하고 늘 축제 같은 나날이 되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운들, 오묘한 색채, 자연스런 형태, 눈부신 햇살, 바람의 노래, 나뭇잎의 흔들림, 꽃들의 속삭임, 이들의 질감까지도 놓칠 수 없어 사진에 담고 기억하며 내면에 녹아든 이 모든 자연을 재해석하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런 과정들은 작업하는데 큰 힘이 되고 즐기며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눈이 펄펄 내리던 오늘도 털 장화를 신고 성지로, 해미읍성으로, 해미천 변으로 달려갔다. 그 귀한 자연을 담고 싶어서다. 귀찮을 수도 있

겠지만 애정이 많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

고객들이 '목인, 숲' 상호의 의미를 궁금해한다. 목인은 작가의 호(號)다. 그 일화는 친구와 음성 산책 중에 작가의 바로 앞에 놓인 부러진 나뭇가지 모양이 나무목(木)과 사람 인(人)자의 모양을 하고 있어 신기하게 여겨 친구가 정해진 귀한 호이다. 숲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고 누구나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힐링하듯 공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작품을 통해 힐링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 목인의 의미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공방은 모자, 스카프, 액세서리, 장신구, 인테리어 소품 액자, 그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출강과 해미문화예술협회 협회전 전시에 매년 참여하고 축제나 지역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해미시장의 활성화가 잘 되어 해미에 오면 '꼭 가보고 싶은 공방'으로 널리 알려지길 소망한다.

논산시민공원

김진영 논산시민공원



도시가 발달할수록 자연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산업혁명 당시 물질이 풍족해지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수명은 짧아졌다. 그래서 만들어졌다. 도심 속에 자연을 가져오는 것, 공원. 그 후로 다 갖춘 도시라고 일컫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부터 각 나라마다 유명한 공원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울창하고 광활한 숲을 방불케 하는 그들의 공원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도시, 지역마다 공원이 많아졌다. 논산에도 2015년에 시민공원이 생겼다. 논산 시민공원은 반야산 자락과 보건소, 공설운동장, 문화원, 열린도서관 등과 연계되어 있다. 자연자원과 주차장, 문화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부지면적 85.662㎡(약 2만 6천 여 평)에 소나무, 편백나무 등

교목 1,240 여 본과 영산홍, 모란 등 관목 4만 5천 여 본, 그리고 꽃창포 등 초화류 3만 6천여 본 등 다양한 종류의 조경수가 심어져 있다.

또한 벽천폭포, 거울연못, 다양한 산책로와 공원 위 아래로 흐르는 작은 실개천 등은 숲을 옮겨온 느낌을 준다. 거울연못은 정자와 주변 식물 등이 물위에 비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거울연못과 대각선 끝부분에 연지연못이 있다. 연지연못 옆에는 예쁜 풍차와 원두막 등이 있는 공원 속의 작은 공원이다.

공원둘레길은 모나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부드러운 산책길이다. 총길이 1,156m로 한 번 도는데 약 15분 걸린다. 둘레를 걷다보면 다양한 오솔길을 만나게 된다. 낮은 언덕 위 곳곳에 소나무 숲, 편백나무 숲, 무궁화동산, 반야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계절마다, 걸음마다 풍경이 달라진다. 익숙함 속에서 낯성을, 낯성 속에서 익숙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고 비로소 마음도 맞춰가게 된다.

공원 한가운데는 푸른 용단처럼 잔잔하게 깔려있는 잔디광장이 있다. 전체 면적 약 700 여 평으로 호랑이, 사자, 곰돌이 푸우 등의 조형물이 있어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즐길 수 있다. 잔디광장 외에 아이들이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닥분수가 있는 물놀이장이다. 오전 10시부터 밤 9시 까지 운영되는데, 여름이면 분수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함께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바닥에 굴러다닌다. 바닥분수 근처에 인공으로 만든 벽천 폭포도 있다. 벽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만들어진 수

로로 흐른다. 수로주변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수변식물과 꽃들이 피어난다.

이외에 족욕장, 수돗물 사랑방, 카페 등이 곳곳에 있어 휴식할 수 있다. 밤에는 LED 야간 조명이 아름답게 공원을 비춘다. 덕분에 밤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즐길 수 있다. 논산시민공원의 또 다른 장점은 문화원과 도서관이 근접해 있는 점이다. 공원에 전시되는 여러 예술품도 산책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전시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원의 의자에 잠시 앉아 따스하게 파고드는 햇살과 함께 책에 빠져들 수도 있다.

논산시민공원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마을로, 숲으로, 마음으로.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1. 판교거리 2. 판교극장 포스터 3. 동일주조장 4. 오방앗간(삼화정미소) 5. 장미사진관

충남 서천의 판교면 현암리는 검은바위, 검은배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옛 판교역 자리에서 북쪽으로 판교교회가 야트막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교회의 동쪽 야산의 끝에 있는 바위가 바로 현암의 유래를 말해주고 있다.

이곳은 1930년 일제강점기때 장항선 판교역 철도개통과 함께 근대기 서천지역 활성화 중심지로 양곡을 비롯한 물자의 수송과 정미, 양곡, 양조산업, 장터가 형성되어 한국 산업화 시기의 번성기를 맞이하였고 198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국토개발 결과로 교통운수업이 발달하여 기존 시장 상권이 축소되고 시간이 지나 우시장도 멈추고 2008년 장항선 직선화 과정에서 판교역의 이전으로 쇠퇴의 과정을 거친 근·현대기 농촌지역 역사 흐름의 흔적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이러한 생활사적 변화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집약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면적 공간단위 문화재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생활사적 변화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동일정미

소, 동일주조장, 장미사진관, 오방앗간(삼화정미소), 판교극장, 구 증대본부, 일광상회 등의 문화유산은 근대도시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일정미소는 1970년 건축되어 동일주조장 원료공급 및 지역 쌀 유통의 주요 산업시설로 역할을 하였고 건축의 기본적 건축형식과 원형뿐만 아니라 내부 정미설비도 함께 잘 보존되고 있어 근대기 판교 마을에서 나타난 생활문화의 변화 과정과 특성을 담고 있다.

동일주조장은 판교의 산업시설 중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주조장으로서 원형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양조산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시설로 과거 판교 지역의 근대기와 번영기를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적 산업시설이다.

장미사진관은 1932년 당시로는 드물게 2층으로 건축되어 독특한 외관과 공간구성을 가진 목조건물로 판교 장터의 중요한 진입부에 자리하며 현재까지 시가지에서 상징적 건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층 목조 상가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화정미소(오방앗간)는 판교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지역 쌀 유통의 주요 산업시설로 자연목을 주로 활용한 복잡한 절충식 목조구조체와 정미용 설비가 잘 조화되며 기능적 공간을 구성하였고 현재 기본적 건축형식과 원형뿐 만 아니라 내부 정미설비도 작동 가능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일광상회는 판교역 전면도로에 면하여 옛 중심도로에서 이루어졌던 상업시설들의 양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1931년 최초 건축된 후 주변 상권발달에 따라 근대기 생활문화를 반영하여 점포가 증축되면서 주거기능의 누적된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판교 구 중대본부는 1964년 당시 판교면사무소 바로 옆에 건축되어 구 판교면사무소와 함께 지역의 대표적, 상징적 관공서 건물로 역할을 하였고 현재 기본적 건축형식과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시설로 판

교의 근대기 행정시설 배치와 마을공간의 성격변화를 증언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구 판교극장은 근대기 활성화되었던 판교지역에서 1960, 70년대 또 다른 근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대표적 건물로 판교가 변성하였던 상황을 잘 증명해 주는 귀중한 현장 사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문화시설로서 원형 대부분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며 현존하고 있다.

이렇듯 판교 현암리는 다수의 근대 건축·문화 등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체되어 '시간이 멈춘 듯한' 이색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군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장미사건관, 판교극장, 오방앗간(삼화정미소) 등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과 문화·체험 기능 도입을 통해 판교 현암리를 근대문화유산 마을로 조성하며 판교면 현암리 일원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함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입선 유유신
칠갑산 천문대의 아름다운 유성우

칠갑산 천문대로 오세요

청양의 명소



전미진 칠갑산천문대운영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칠갑산천문대는 일반인을 위한 천문우주테마과학관으로, 백제의 진산(鎭山)으로 알려진 칠갑산에 자리 잡고 있다.

청정 청양의 깨끗한 밤하늘을 독일 TMB사의 최고급렌즈(아포크로메틱)를 이용한 304mm 대형 굴절망원경으로 더욱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으며, 또한 보조관측실에서 여러대의

고급 소형망원경들(MEADE, TAKAHASHI, APM 등)로 별과 행성, 성운 성단 등의 우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날씨와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고화질의 천체투영기로 돔 형태의 천체투영관에서 입체적인 우주의 영상을 볼 수 있으며, 3D안경을 이용하여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출처: 청양군 www.cheongyang.go.kr, 칠갑산천문대 www.cheongyang.go.kr〉

천문우주 관련 영상물 상영, 계절별 별자리 및 천체관측, 우주과학 관령 입체 영화 상영 등 조금 더 가까이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천문우주 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칠갑산 천문대는 교육성과 즐거움을 겸비한 에듀테인먼트 요소를 갖춘 최고의 천문대로 평가받고 있다. 천문대는 예약제로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날씨가 많이 흐린

날은 별자리 관측이 불가능 할수도 있다고 하시니 예약하실 때 참고 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사계절 내내 변화되는 별과, 행성 등의 모습을 보러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아직 못보셨다면 알프스의 청양 칠갑산 천문대로 나들이 한번 오시는 건 어떨까요?

천주교 홍주 순교 성지



하천 왼편으로 마련된 홍주순교성지



조남민 홍주문화재단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미읍성 방문으로 인해 내포지역의 천주교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때 홍성지역의 순교자 원시장 베드로, 방 프란치스코, 박취득 라우렌시오, 황일관 시몬 등 4명이 복자품(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지위)을 받으면서 홍성의 천주교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홍성은 이미 이전부터 여러 연구를 통해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임이 밝혀졌고, 군에서도 순례지를 정비하고 답사코스를 마련하자 전국적인 순례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에서도 당진의 슬피성지, 해미읍성, 배나드리 성지, 신리성지 등과 함께 홍주순교성지를 제5코스로 선정하였다. 이 길은 홍주읍성에서 출발하여

의사총 주변까지 이어지는 짧은 구간이지만 홍성을 중심부를 통과하며 여러 문화유산들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이기도 하다. 홍주는 한국천주교 창설 초기(1784년)부터 충청도의 첫 전파자인 이존창(李存昌)의 영향으로 천주교가 활발히 전파된 곳이다. 천주교 신자가 제일 많았던 홍주는 행정, 군사적 요충지로 홍주목과 진영이 있던 관계로 많은 순교자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초기 박해인 신해박해(1791)~정사박해(1797) 동안 8명, 중기 박해인 신유박해(1801)~기해박해(1839) 동안 4명, 병인박해(1866~1873) 동안 200명, 총 212명의 순교자가 탄생되었다. 홍주는 천주교 박해기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순교



홍주성 감옥터. 이곳에서 순교자의 절반이 숨을 거두었다.



자를 탄생시킨 천주교의 성지가 되었다. 워낙 많은 순교자가 있던 관계로 홍주성지는 6곳의 순교터를 갖게 되었다. 고문과 재판, 피로 얼룩진 목사의 동헌과 진영장의 동헌, 그리고 감옥터, 조리돌림을 당한 저잣거리, 참수터와 생매장터가 그것이다.

홍주순교성지는 홍주의사총 앞 도로 건너편에 아담하게 조성되어 있다. 4차선 바로 옆이지만 크게 시끄럽지 않고 큰 나무가 있어 오히려 편안한 느낌도 든다. 천주교 신자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 곳이며 특히 주말이면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참배하는 종교인들로 북적인다. 홍주천주교순교성지 비문에 있는 '순교자의 숭고한 녀은 평화의 빛이 되리라'라는 글에서 대부분 깊은 한다.

이 성지에는 예수의 고난을 표현한 14개의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어 심문과 고문, 죽음의 형장까지 고된 십자가의 길과 순교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월계천을 상하로 끼고 걸을 수 있도록 배려된 이 성지는 심심하지 않을 만큼 볼거리 읽을거리가 많고,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을 수 있는 대교 공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 이곳은 천주교도 있고, 한국유럽독립운동 파리장서비도 있고, 만해 한용운도 있고, 명곡 이산보 선생 유사비도 있기에 종합 사색터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충청남도 안흥항의 향 혼자만 알고 싶은 숨은 여행지



바
이
두

우럭과 주꾸미의 성지, 안흥항

안흥항은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국내를 대표하는 어항 중 하나인데, 앞바다는 물이 맑고 수심이 깊어 우럭의 서식지로 알맞은 곳이어서 예전부터 낚시꾼들에게는 '낚시의 성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낚시에 취미가 전혀 없는 내가 안흥항을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태안 초입에 있는 항구이기에 당일치기 여행에 알맞은 이동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있었고, 더욱 중요했던 것은 여행지 선택에 가장 중요한 의지를 부여하는, 그리고 언제나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현지인의 강력한 추천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현지인 추천은 배신하지 않는다.'

깜짝 놀랄 반전, 안흥 나래교와 태안 해양유물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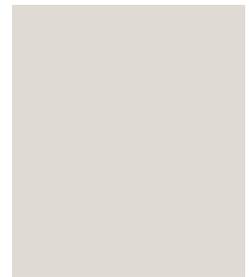
아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안흥항에 도착한 여행객이라면 어쩌면 평범하고도 전형적인 항구의 모습에 적잖은 실망

감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세상일이 그렇듯, 너무 이른 결론과 판단은 잠시 보류해 두자.

주차장을 위해 안흥항 입구로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다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코너를 돌게 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찰나 순식간에 나타나는 안흥 나래교와 멋진 서해의 풍경에 아마 조금은 맘을 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차를 주차하고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안흥 나래교를 향해 천천히 걷다 보면, 이곳 지역 특산물이나 다름 없는 말린 우럭이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가득할 것만 같은 오래된 학원이 정겨운 시골 어촌의 풍경으로 다가와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안흥 나래교를 천천히 돌고 돌아 정상에 올라서면, 이전 제법 쌀쌀해졌지만, 그 상쾌함이 싫지 않은 가을바람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내 온몸을 간지럽히고, 눈앞으로 펼쳐진 끝도 없는 망망대해에 잠시



낮을 잃게 된다.

‘서해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안흥 나래교를 지나 신진도로 건너오게 되면 2018년에 개관한 국립 태안 해양유물전시관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꼭 방문하길 추천한다.

우리 전통 배의 규모와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태안 해양유물전시관의 랜드마크인 마도 1호선 재현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해저 유물 탐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눈에 띄는데, 특히 마치 해저 속에서 유물을 함께 찾아보는 듯이 멋지게 꾸며놓은 영상관의 아이디어도 무척이나 재미있다.

안흥항을 다시 오게 할 이유, 안흥항 커피

안흥항에는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커피와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유일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지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했었던 ‘안흥항 커피’이다.

안흥항 코너에 위치해 주거용 이층집으로 쓰였을 듯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이곳은 그 외관에서부터 풍기는 포스가 심상치 않은데,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꽤 수준급의 맛있는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주고, 무심하게 툭툭 던져놓은 듯해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 쓴 독특한 인테리어가 이곳 주인장의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

따뜻한 카페라테 한잔과 함께 너무나도 평화로운 안흥항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거창하게만 생각했던 여행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른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지 말자. 힐링이 바로 이런 거지 뭐...’

필명: 'Bynue', 한글로는 '바이누'

〈출처: <https://brunch.co.kr/@bynue/70>〉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지구를 지키는 너랑 나”

최은지 천안시서북구문화원





회 차를 거듭 진행하면서
수강생들도 점차 환경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사용한 종이컵도 아까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이 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중입니다. 가장 변한 점은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리와 방역으로 인해 일회용품·플라스틱 용기가 더욱 사용되며, 특히 배달문화가 발전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이래 없었던 전염병으로 인한 상황이지만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보다 여유가 생겨 주변을 다시 보니 안보였던 이면이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꼽혔던 한국이란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웨이스트가 더욱 주목을 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란,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회활동입니다.

천안 중심시내에선 제로웨이스트 상점, 원데이클래스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만, 문화원 인근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역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생활용품과 밀접한 제로웨이스트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세탁세제, 주방비누, 수세미, 친환경 비누, 고체치약과 EM발효액 등 다양한 제품이 어떠한 성분이 친환경 제품인지, 기성제품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업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직접 만들고 일상에서 사용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생활에서 실천했던 일화를 말하고 공유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니 재미있다.”, “살림에 꼭 필요한 것을 친환경으로 사용하니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일회용품을 낭비한 게 반성하게 된다.”는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입장으로 매우 뿌듯했습니다.

회 차를 거듭 진행하면서 수강생들도 점차 환경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사용한 종이컵도 아까워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반성했습니다.

한 번의 프로젝트로 인해 모두가 100% 실천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의 긍정적인 변화는 앞으로 환경과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제로웨이스트가 어렵고 자신과 먼 일이란 생각보다 더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과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로 더욱 발전되길 바랍니다.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 성과 발표회

보령문화원,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 성과발표회 열려

한흥호 보령문화원

보령문화원(원장 황의호)은 11월 17일 오후 7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사업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참여 시민 200여명과 김동일 보령시장, 박상모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성과발표회는, 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1년여 간 공들여 제작한 개인의 문화유산 작품에 대한 전시 및 발표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된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의 삶이 역사적으로 귀중한 문화유산 자원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 하에 개인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 3년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1년차 결과물로 ‘나만의 음반 갖기’ 참여자 32명, ‘구술 생애사 만들기’



1. 나만의 음반 갖기
2. 낭송음반 만들기 참가자들이 시를 낭송하고 있다.
3. 나만의 음반 갖기 참가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4. 낭송음반 만들기

- 5-6. 나만의 문집 갖기 참가자들이 발간한 시·수필집
7. 김동일 보령시장이 축하인사를 전하고 있다.
- 8-9. 서예로 가훈 남기기 작품 전시회

7명, '나만의 문집 갖기' 9명, '서예로 가훈 남기기' 12명, '낭송 음반 만들기' 7명, '펜글씨 필사 책 만들기' 2명, '공예작품 만들기' 1명, '야생화(꽃)차 만들기' 10명, '나만의 인생샷 찍기' 213명 등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독특한 자기만의 문화유산을 갖게 되는 기쁨을 누렸다.

김동일 시장은 축하 인사말에서 “재능과 소질에 맞게

적절한 문화 활동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만의 문화유산으로 까지 승화시키는 것을 보고, 행복한 시민들이 많아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참여 시민들을 격려했다.

2022 문화가족 한마당잔치 2022년 수고많으셨습니다!

박현미 온양문화원



1. 바느질과 뜨개질의 콜라보를 통한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
2. 정종호 온양문화원장의 인사
3. 유환동 충남문화원연합회장의 축하 인사

4. 수상자들 기념사진
5. 프랑스 자수반의 전시
6. 장구난타반 발표회

7. 훌라후프 경기
8. 흥겨운 댄스타임
9. 박터트리기

마음껏 웃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응원하며, 너나 할 것 없이 2022년 수고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 하루였다. 2022 온양문화원 문화가족 한마당잔치를 통해 온양문화원이라는 울타리로 맺어진 문화강좌 강사, 수강생, 동아리 회원 그리고, 온양문화원의 임직원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간을 격려했다.

지난 12월2일(금),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 온양문화원 문화가족 한마당 잔치'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SBS 공채 8기 개그맨 최기정씨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한마당 잔치는 올 한 해 동안 배운 것들을 다른 강좌, 동아리생들 앞에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으로, 강좌별 발표 공연과 어르신 바느질과 뜨개질 작품을 비롯하여 지난 10월, 청양에서 개최된 충남생활문화축제에서 전시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프랑스자수와 전통매듭, 문인화, 서양화 작품 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발표회 시작에 앞서 정종호 온양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른 취미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성과를 이루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소소한 준비까지 함께 해 준 온양문화원 이사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자리에 함께 한 유환동 충남문화원연합회장은 각 문화원별로 강좌와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온양문화원은 '2022년 충남문화원상 대상'을 수상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우수 문화원이며, 그런 문화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화강좌 수강생들과 동아리생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2년 우수 문화강사(난타 김민옥 강사), 우수 문화강좌생(아코디언 전달진 수강생), 우수반(한국무용반)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잔치가 시작되었다. 또한 아산시 문화관광과 최옥진 팀장에게는 온양문화원의 사업과 리모델링 추진 등 공로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 수여도 함께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순서는 국비 공모사업인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올 4월부터 11월까지 수업을 이어

온 '바느질과 뜨개질의 콜라보'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모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작품을 만들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선장면과 온양6동에 기부함으로써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노년을 실천하며, 나눔을 전하는 훈훈한 온정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진 각 반의 발표 시에는 아낌없는 박수로 한해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전 강좌반을 백팀(전통매듭, 경기민요, 장구난타, 팽송교실, 문인화, 하모니카, 서양화, 태극권, 민화)과 청팀(아코디언, 한국무용, 사물놀이, 난타, 우쿠렐레, 라인댄스, 통기타, 판소리, 색소폰, 한글서예)으로 나누어 진행된 명랑운동회에서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목청껏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어린 시절 운동회의 시간속으로 추억여행을 온 것과도 같았다. 투호-제기차기-줄넘기-대형윷던지기의 릴레이 게임인 우리동네 올림픽을 비롯하여 협동 제기차기, 공굴리기, 2인3각 릴레이, 훌라후프 등 참가 선수들은 정말 올림픽에 출전한 것과 같은 열정을 다하여 경기에 임했으며, 그 결과 청팀에게 우승의 영광이 돌아갔다. 특히 번외게임으로 진행된 온양문화원 이사회와 사무국의 공굴리기 경기는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사무국까지 한마당 잔치를 통하여 함께 동참하는, 화합의 장을 보여 주었다. 이 날 행사 진행중에는 온양문화원 이사회에서 준비한 많은 경품들을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1등 행운의 주인공은 경기민요반의 설○○ 수강생에게 돌아 갔다. 온양문화원 이사회는 문화원의 사업이 있을 때 마다 파란 조끼를 착용하고 사업 진행은 물론 뒷마무리 청소까지 솔선수범하여 파란 조끼 이사회라는 애칭으로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즐거운 한마당 잔치는 최기정 진행자와 모두가 함께 한 댄스 타임으로 흥을 돋우며, 올 한 해의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 보냈다. 끝으로 어린시절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박터트리기 순서에서는 합심하여 박을 터트리며 내년 시작될 프로그램을 기약했다. 한 해를 함께 달려온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박 터트리기에서 쏟아져 나온 현수막 글귀처럼 2022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양문화원 화이팅! 을 외치며...

간월도로 떠나는 우리가족 갯벌체험

이미정 서산문화원

예로부터 어민(漁民)들에게 ‘바다의 밭’으로 불리며 풍부한 양적 자원을 가진 곳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갯벌은 지금까지도 어촌계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 갯벌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문화재청은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여기서 ‘갯벌어로’란 전통어로 방식 중 하나로 맨손이나 손도구를 활용하여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을 뜻

한다. 지금까지도 어민들에게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갯벌은 그만큼 오랜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서남해안에서 발굴되었던 조개무덤 유적을 살펴보면 갯벌에서 채취한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조선 후기 문신 정약전(丁若銓, 1814)이 쓴 [자산어보(茲山魚譜)]를 살펴보면 갯벌에서 살고 있는 패류(貝類)와 연체류(軟體類)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갯벌어로를 서산 시민





오랜 역사를 지닌 갯벌을
즐겁게 즐겨준 가족분들 덕분에 서해안 갯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들과 함께 체험하고 공부해볼 수 있도록 서산문화원은 2022년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갯벌어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서산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역사적, 문화적 관광자원을 가진 간월도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연구소와 겨레문화유산 연구소장 등 풍부한 지식을 가진 강연진들을 섭외하여 갯벌어로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하였다. 첫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강연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함께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오전 강연이 끝나면 곧바로 간월도로 도착하여 굴과 조개를 직접 채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현지 어촌계장의 지도하에 직접 조개를 채취하는 시범을 보여주었고, 중간중간에 갯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오전에 배웠던 생물들을 만나보며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강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며 함

게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조개체험을 마치고 어리굴젓 공장에 방문하여 직접 굴젓을 담가보는 시간을 가지며 어리굴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듣고 삼삼오오(三三五五) 모여 양념장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하였다. 한 참여자 부모님은 '아이들이 이룬 수업 때 배운 갯벌어로를 직접 경험해보고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직접 담근 어리굴젓을 뿌듯하게 바라보기도 하였다.

마지막 체험을 끝으로 서산 시민 가족분들과 함께 총 5회차 프로그램을 끝마쳤다. 오랜 역사를 지닌 갯벌을 즐겁게 즐겨준 가족분들 덕분에 서해안 갯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서산문화원이 진행했던 갯벌어로 체험이 국가무형문화재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잘 보존되어 길이 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논산의 가을, 논산문학제로 풍성

이준창 논산문화원

가을의 절정을 맞은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제1회 논산문학제가 열렸다. 논산 문인과 문학을 대내외 알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시민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정서 함양과 순화에 그 목적을 두었다. 시, 소설 등 장르별 많은 작가를 배출한 논산이 논산 문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첫 삽을 뜬 것이다.

논산문화원이 주관하고 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후원하는 문학제 첫날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김관식문학상은 등단 10년 이상 기성 시인 창작 시집을 접수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한 결과, 오세영 시인의 시집 『갈필의 서』를 선정하였다. 오세영 시인은 서울대 국어국문학

과 명예교수로 1965~68년 『현대문학』추천으로 등단하였다. 『시간의 뗏목』, 『봄은 전쟁처럼』, 『문열어라 하늘아』 등 다수 시집과 시선집은 물론 『한국현대시인연구』,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시 쓰기의 발견』 등 활발한 연구로 한국 시 문학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국문학자이다. 시상식에서 오세영 시인은 첫 수상의 영예와 함께 상금 700만원을 받았다. 논산문학상은 김광순 시조시인, 송재용 소설가, 안정혜 수필가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수여했다. 세명대학교 김현정 교수는 '김관식 시인과 문학상의 제정과 의의' 특강으로 시인을 기리는 문학상의 의미를 더했다. 문학제 일정이 변동되면서 김관식문학



논산의 늦가을은
풍성한 문학제로 물들었다.



상 나태주 심사위원은 영상으로 심사평을 대신하였다. 시상식 이후 ‘이근배 시인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대화의 시간에서 이근배 시인은 김관식 시인과의 깊은 인연과 추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한편 시낭송날개달다 문화원 동아리는 김관식 시인을 기리는 시극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시낭송과 아코디언 연주도 함께 어우러졌다. 둘째 날은 오전부터 문화원 앞마당에서 도서 가방, 책갈피, 시집 및 시화 액자 만들기,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볼거리가 펼쳐졌다. 오후부터는 12 가족이 참여한 ‘문학 가족 낭독대회’본선 무대가 펼쳐졌다. 다양한 문학 작품을 낭독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족들의 아름답고 화기애애한 무대를 볼 수 있었다. 이어서 논산 문인들의 시 노래는 물론 연주와 춤 등 다양하게 꾸며진 ‘시와

음악 어울림 콘서트’가 다채롭게 꾸며졌다. 문학제 기간 동안 논산 문인 13명의 대형 시화 전시회와 27명의 논산 작가들이 참여한 ‘논산문학도서전’이 문학제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또한 논산의 작고한 시인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시비 순례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학생들과 일반인이 참여해 박용래, 김관식 시인 등 시비와 소금문화관과 김홍신문학관을 문학 해설사와 함께 답사했다. 참가자들은 논산의 문인과 문학을 이렇게 배우고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깊고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논산의 늦가을은 풍성한 문학제로 물들었다. 논산문학제는 소수의 문학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한다.



문화로 물들인 주말, “청소년컬처위크엔드”

김아담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2022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새로이 등장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가 주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설은 운영 시간 확대를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전국 생활문화센터의 관심 속에 최종 4개의 시설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그 중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가 포함되어 '청소년컬처위크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청소년컬처위크엔드'는 전통문화의 발굴·보존 계승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당진문화원의 모토를 반영한 프로그램

이다. 기존 성인 위주 시설 이용자에서 벗어나 사업 대상을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정규 운영 시간이 아닌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 일 주말을 개방하여 지역 학생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예술적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는 교육을 지양하고 참여자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작품 전시회 및 공연 발표회' 행사를 추가 기획하여 자칫 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 목표를 설정해주었고 이는 이번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시범 사업이자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는 터라 9월 초부터 프로그램 홍보 및 수강생 모집으로 분주해졌다. 난타 & 리듬, 전통소리&장구, 한국화&문인화, 시&수필, 서예





‘미래 생활문화 향유자’인 학생들은
생활문화센터라는 시설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캘리그래피, 전통매듭&꼬기, 짚풀&공예 총 7개의 복합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는데 홍보 기간이 짧았음에도 사업에 참여한 강사님들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70여명의 학생이 신청을 하였다. 신청자들은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는데 무엇보다 이번 사업으로 당진생활문화센터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센터를 알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드디어 ‘청소년컬처워크엔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인력으로 지원한 이진희 당진문화원 회원은 11주 동안 시설 운영 관리를 맡아 프로그램 준비를 비롯해 교육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 촬영, 안전 관리 등 매주마다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었다. 사실 토, 일 주말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시간이 많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일정으로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하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들도 일정을 조율하여 학생들을 센터로 보내주셨고 다행히 큰 공백없이 11주간의 프로그램은 순항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12월 3일(토) 오전 10시에 개최된 전시 및 발표회는 폭우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 및 가족, 사업에 참여한 강사와 보조강사 등 1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하였다. 당진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개회식이 열렸고 뒤이어 난타&리듬반과 전통소리&장구반의 공연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오늘 무대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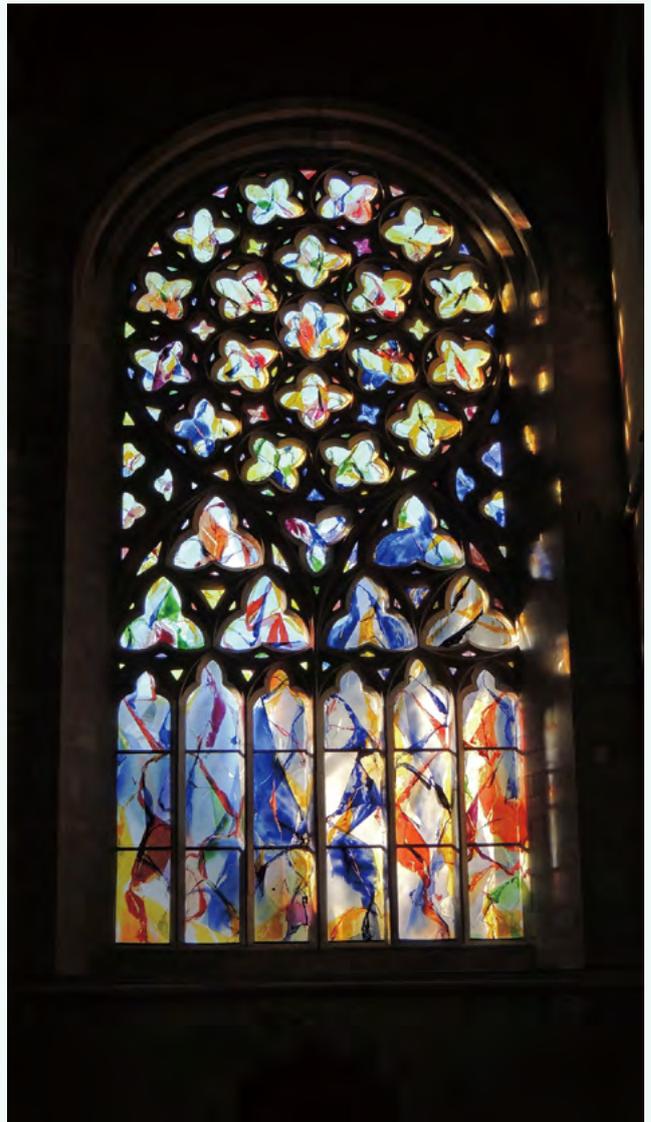
해 준비한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간 배운 기량을 뽐냈다. 언제 긴장했냐는 듯이 학생들의 얼굴은 금새 밝아졌고 이를 놓칠 새라 부모님들은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한 컷 한 컷 담았다.

공연 발표회가 끝나고 2층 소전시실에서는 전시회 오픈식이 이어졌다. 한지로 만든 줄을 학생과 관람객 전원이 잡고 직접 손으로 찢는 열린 방식으로 오프닝이 진행되었으며 전시회장을 가득 채운 다섯 개 장르의 작품들은 약 3개월에 걸친 청소년컬처워크엔드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사군자를 비롯해 자유로운 심상과 먹을 조합해 그려낸 문인화 작품, 한 획 한 획 정성들여 그어낸 글씨들, 빗자루부터 달걀꾸러미 등 짚을 꼬아 만든 실용적인 공예품, 알록달록한 매듭끈을 엮어 만든 드림캐처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의 시가 부채, 병풍, 나무시비 등 창의적인 소재와 만나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 전시장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당진생활문화센터는 이번 청소년컬처워크엔드 사업을 통해 센터의 새로운 운영 동력을 얻는 한편 ‘미래 생활문화 향유자’인 학생들은 생활문화센터라는 시설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공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함과 동시에 시설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당진생활문화센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를 초석 삼아 당진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생활문화 거점으로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해본다.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초청강연

김인권 부여문화원





부여가 고향이라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부여문화원에서는 11월 10일(목) 오후 2시 문화원 소강당에서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의 거장인 김인중 신부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부여군민과 김인중 신부 매니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날 강연회는 박정현 부여군수의 인사 말씀과 정찬국 문화원장의 약력 소개에 이어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김인중 신부는 “고향인 부여 초촌을 일찍이 떠났지만, 고향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으며, 부여가 고향이라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라며, “백마강은 내 의식 속에 흐르고 있다.”고 말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예술가이자 성직자인 김인중 신부는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태생으로 서울대 미대와 동대학원 재학시절 국전 특선과 민선 1회 대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두각을 나타냈다.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중 사제 서품을 받았고, 1975년부터 프랑스 파리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스테인드

글라스, 회화, 도자 분야에 전념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특히 동양화 기법을 가미한 독특한 스테인드글라스와 회화로 유럽 화단에서는 샤갈과 마티스를 능가하는 빛의 화가로 불린다.

김인중 신부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200여 회의 전시회를 가졌으며, 스테인드글라스 종주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지에 있는 세계 유수의 성당 40여 곳에 작품을 설치했다.

금년 8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초빙 석학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카이스트 중앙도서관인 학술문화관 천장에 53개 조각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양 정산에 100년 된 연초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빛섬 아트갤러리’를 개관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지역 문화재는 내 손으로~~” 문화재지킴이

정혜옥 서천문화원

문화재지킴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활성화하는 문화재 보호활동으로 서천문화원에서는 2022년 문화재청과 (사)한국문화재지킴이 단체연합회의 문화재보호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의 스승이며 영원한 청년으로 남아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과 생가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화 활동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키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선생의 시대를 앞서나가는 통찰력

과 민중을 아우르는 리더쉽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진행하게 되었다.

5월13일에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역사적인 문화재지킴이 첫 번째 활동을 가졌다. 문화재지킴이 발대식으로 문화재지킴이 선서, 월남 이상재 선생 교육, 문화재지킴이 이름 짓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무척 더웠던 날로 기억되는 7월6일에 문화재지킴이 활동준비를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전조사 활동도 진행되었다. 이상재 선생 생가 및 기념관을 돌아보고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 묻기도 답을 찾기도 했다. 이상재 선생의 사



상과 이념을 이해하며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가졌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날씨만큼 뜨거운 학생들의 열정이 더욱 감동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두 번째 활동은 7월 16일에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다. 문화재지킴이들이 사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남 이상재 선생에 관한 문제를 만들고 출제하여 맞춤형 참여자에게 슬러시 주기, 이상재 선생과 관련한 캐릭터를 만들어 페이스페인팅, 타투, 스티커 체험하기, 과거 역사 체험 등을 하며 우리의 뜨거운 여름을 마무리했다.

세 번째 활동은 9월2일에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및 기념관에서 먼지를 닦고 잡초를 제거하는 정화 활동을 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정화활동이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싫어할 줄 알았는데 서로 웃으며 열심히 정화활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네 번째 활동은 10월13일에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간단히 디지털드로잉 법을 배운 후 월남 이상재 선생을 디지털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에 그 결과물로 굿즈를 제작하고 월남 이상재 선생의 생가와 기념

관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활동은 11월 25일에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졌다.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활동영상을 감상하고 그 동안의 활동후기를 작성했다.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며 문화재지킴이 마지막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 걱정도 많이 됐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서천군청소년수련관의 협조로 문화재지킴이 학생들을 수월하게 모집할 수 있었고 장소, 프로그램 진행 등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또한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융합미디어학과 선생님과 학생들이 문화재지킴이들의 활동모습을 사진과 영상을 남겨 주셔서 적은 사업비로도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었다. 본 지면을 통해 서천군청소년수련관 관장님과 직원분들,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융합미디어과 선생님과 학생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문화재지킴이 학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3년도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기대해 본다.

제23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성료

장승과 함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 대축제

복은주 청양문화원

제23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장승공원 일원에서 펼쳐졌다.

올해 행사는 3년만에 전통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청양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충남의 대표 향토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장승'을 모티브로 전통적 마을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청양으로 주민참여형 전통 문화축제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날 29일 주요행사로 장승대제를 위해 농소리 장승을 운송하는 퍼레이드로 기존 건강걷기와 장승제 행사를 결합하여 청양관내 군민과 함께 청양치타데, 풍물팀, 제관들 그리고 장승제를 지내는 90여개 마을도 마을기를 들고 참여하여 장승대제 건강기원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올해는 농소리 마을 장승이 대장승이 되어 마을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포함한 장승대제를 지냈으며 마을장승제는 가족모집공고를 통해 가족이 마을장승제를 마을주민과 함께 장승도 깎아보고 제를 함께 지내보는 체험을 함께 진행을 하였다. 내년에도 더 많은 체험가족으로 마을장승제에 참여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지역 흥공연과 청양극단 마당극도 관광객의 흥을 돋구어 주었다. 대장승배 마을별 OX퀴즈로 관광객 모두 푸짐한 상품으로 큰 기쁨도 나누었다.

스리랑카의 코끼리가 멸종위기의 동물로 보호받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코끼리 똥종이 공장이 생기면서 지금은 1급 보호동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승



이 지켜주던 우리마을을 이쁘게 그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코끼리똥종이를 구입하여 깨끗한 청양의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여 그림을 그릴수 있는 코끼리 똥종이 마을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그림을 그리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었다.

둘째날 30일은 전국 가족숫대짜기도 30여 가족이 참여 색다른 풍경을 이루었다. 가족단위로 모집하여 진행하였는데 3대가 모여 숫대짜기에 참여한 가족은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시상품도 받아가서 기쁨이 두배!!!

축제 기간동안 효제리에 전해지는 아들바위 설화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아들, 딸, 승진, 건강 등 한궁을 던져 점수가 넘으면 성취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의 큰 체험과 흥미를 갖게 하였다.

소원을 빌고 싶다면 청양 장승공원으로 오시길...

수능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청양 장승공원으로!!!

청양의 풍물하면 우다리 농악이다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져 어깨춤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만들기도 하며 국악인 남상일 초대로 무대의 열기가 대단 하였다.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겁고 체험을 통해 기쁨을 갖는 축제이다. 장승이란 무거운 향토축제이기도 하지만 장승공원에 위치한 장승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무서한 표정으로 세워져 있던 장승들이 이제는 익살스런 표정으로 장승공

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대단하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전통혼례를 진행하였다.

홍보를 통해 두 부부가 접수되어 선정되었으며 전통혼례식에 참여한 두 팀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머리손질과 메이크업으로 시작으로 전안례와 교배례, 백년가약의 혼인을 서약하는 합근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가마를 타고 행진할 때 활짝 웃는 신부의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

참가한 부부는 많은 사람들앞에서 새삼스럽게 혼례를 한다고 하여 창피하여 많이 망설였다면서 “한국에 와서 혼례를 치루고 싶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그냥 살았다.. 남편이 같이 해 주는것도 기쁘고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고 말하며 감사하다고도 거듭 말하였다.

청양 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3년만에 개최된 만큼 알차고 풍성했으며 지역의 향토 문화축제로 더 성장 발전하였다. 내년 24회 축제도 더 알차고 볼거리, 먹거리, 체험등 풍성하게 준비하여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청양으로 올수 있도록 다짐해 본다.

임호빈 축제추진위원장은 “장승은 우리 민속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고대로부터 유래돼 전승되고 있고, 전국 장승대제로 군민들이 소원 성취하시고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돼 가정의 재난과 질병이 모두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며~

김숙희 홍성문화원





만해 한용운 선사 탄신 143주년을 맞아
그의 생가가 있는 결성면 만해사에서
매년 8월 29일에 진행



만해 추모제는 흥성문화원에서 1995년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추모제는 만해 한용운 선사 탄신 143주년을 맞아 그의 생가가 있는 결성면 만해사에서 매년 8월 29일에 진행됐다. 일제 강점기에 불의에 항거하며 민족의 자존을 지킨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며, 승려로 만해 한용운의 위대한 업적을 선양하고, 자랑스런 지역의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애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1879년 고종 16년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8월 29일 한응준의 2남으로 출생. 본관은 청주, 자는 정옥, 속명은 유천이며 득도 때의 계명은 봉완,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卍海)이다.

1905년 27세에 백담사에서 김연곡 스승에게 득도하고 전영제 스승에 의하여 수계 이학암 스승에게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을 수료했으며, 1908년 30세에 유점사에서 서월화 스승에게 <화엄경>을 수학, 건봉사 이학암 스승에게 <반야경> <화엄경>을 수료했다.

1917년 39세에 설악산 오세암에서 참선 중 깨달음을 얻고 <오도송>을 지었다.

1919년 41세에 3. 1운동 당시 불교계의 대표로 참여, 독

립선언서에 공약삼장 첨가,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옥중에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제출하였으며 1924년 46세에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편소설 <죽음>을 탈고, 1925년 47세에 오세암에서 <십현담주해>, <님의 침묵>을 탈고 했다. 1927년 49세에 신간회 경성지회장에 당선되어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초동맹으로 개칭했으며, 1933년 55세에 서울 성북동에 심우장을 지어 기거했다. 1935년 57세에 조선일보 장편소설 <흑풍>을 연재하고 1937년 59세에 항일운동가 일송 김동삼이 옥사하자 유해를 심우장에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주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1944년 66세 6월 29일에 심우장에서 입적. 미아리 화장장에서 다비한 후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다.

만해추모다례는 한용운선사의 생가지 일원 만해사에서 혼을 기리는 진혼무를 시작으로 수덕사 주지스님의 축원과 헌향 헌다 꽃과 차를 바치는 의식과 수덕사 용산 큰스님의 법어 말씀으로 다시금 만해 한용운 선사의 뜻을 기리는 시간이 됐다.



내 이름은 파비, 팝콘이죠

최유주 예산문화원

산뜻한 봄바람이 부는 5월 초. 예산문화원이 위탁 운영 중인 예산시네마에 마스코트 캐릭터가 태어났다. 이름은 파비(Pop-e). 예산시네마가 개관한 해에 맞춰 태어나자마자 다섯 살이 되었다. 파비는 캐러멜 팝콘이 되고 싶어 기계를 탈출한 오리지널 팝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콩처럼 작은 검은 눈과 동그라미를 반으로 자른 것 같은 코, 분홍빛이 도는 뺨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이마에는 분홍색 하트가 그려져 있다. 귀와 옆구리 그리고 꼬리에 보이는 갈색은 캐러멜이다. 목에는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가 수놓아져 있는 노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에는 사과와 잎을 매달고 있는 강아지의 형태를 한 팝콘. 파비는 예산시네마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되었다. 당시 시안에는 파비처럼

팝콘을 형상화한 양이나 예산군의 군조를 따와 3D 안경을 쓴 황새 등이 있었다. 여러 시안 중 팀 회의를 거쳐 파비가 최종 선정되었고 몇 번의 설정 수정을 거쳐 지금의 파비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작 단계에서 캐릭터 디자인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였다.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든다 해도 대형 영화관처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기껏 캐릭터를 넣은 텀블러와 팝콘 용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려 해도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는 참고에 머지만 쌓이는 게 당연지사. 그렇기에 예산시네마를 이용하는 군민 및 관람객에게 이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예산시네마는 예산문화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



“

파비는 캐러멜 팝콘이 되고 싶어 기계를 탈출한
오리지널 팝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

한 이용자에게 그 주의 영화시간표와 할인 쿠폰, 예매 방법 안내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매주 월요일마다 발송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대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단어 등을 이미지로 깔끔하게 제작해 발송했다면 그때부터는 파비를 활용했다. 각종 이벤트 안내와 매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컵과 담요도 캐릭터를 넣어 제작해 눈도장을 찍었다. 관람료 인상으로 기대작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을 기록하던 때에는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관람객에게 캐릭터를 홍보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하게 되었다. 바로 매월 초 진행되는 ‘개봉예정작 퀴즈’ 이벤트다. 한 장의 이미지에 파비와 함께 그달에 개봉하는 영화에 대한 힌트를 넣어 정답을 맞춘 응모자에게 추첨을 통

해 예산시네마 관람권을 증정하는 것이 내용이다. 개봉하는 영화의 개수는 매달 달라지는데, 모든 영화를 맞출 경우 당첨될 확률이 올라간다. 접수 및 결과 발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 예산시네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 퀴즈 이벤트는 8월에 시작되어 12월까지 5개월간 총 응모자가 일천일백 명을 넘어섰다.

예산시네마는 이다음으로 새로운 관람권 디자인에 파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산시네마 마스코트 파비가 어떻게 활용될지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2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개발과 간척사업으로 인한 주민 생활 변화’

전지현 태안문화원



“
간척지가 지역민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
”

1. A-B지구 방조제
2. 태안읍 어은리 간척지
3. 생활사 기록가 자체교육진행
4. 구술자와 기록가 면담현장
5. 현장 스케치 촬영(드론 촬영)
6. 가로림만 일대 선박 촬영
7. 태안성과공유전시회
(©태안문화원)

태안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한 「2022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전국 지역 문화원 중 지역학과 민간기록물(아카이빙)에 대한 인식이 높고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태안문화원은 사업참여 5개 문화원 중 한 담당 기관으로 선발되었다.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사업은 지역의 가치 있는 역사와 사건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지역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기록물에 대한 통합적 수집·보존·관리 대책 마련 필요에 따라 지역학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목적을 홍보하고 수집한 기록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일반인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선정한 태안문화원의 사업주제는 태안의 지형과 근·현대 경제문화를 고려한 ‘개발과 간척사업으로 인한 주민 생활 변화’이다. 민간 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간척사업과 개인에 의한 소규모 간척사업 등 여러 차례 시행되었던 태안은 간척지가 지역민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조사하였고 간척지경작, 어업생산품습의 변화, 이동 수단 발달 등 주민들의 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자료수집과 면담 진행을 위해 생활사 기록가 7명을 모집, 선발하여 기록가 양성 교육을 시행하였다. 7명의 기록가는 태안 간척사업에 대한 기초 교육과 지역전문가, 구술전문가에게 컨설팅받으며 면담 활동을 체계화하였고 기획서 작성, 구술자 모색 등 활동의 주체가 되어 면담 진

행을 위한 작업을 탄탄하게 준비한 후에 현장 이입하였다.

6월부터 10월까지 7명의 기록가는 각 구술자 3~4명씩(면담 2회) 구술채록하여, 총 24명의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로 제작한 성과물은 구술 자료집, 구술자 면담 내용을 촬영한 편집 영상물이다. 영상은 면담 장면뿐 아니라, 드론 촬영과 선박 촬영을 통해 간척지 현 모습을 세세히 담아냈으며 가공한 영상물은 추후 ‘지역N문화’ 포털에 올려질 예정이다. 지난 12월 14일에는 성과물 활용으로 자체성과공유전시회 ‘태안의 간척과 생활사 아카이빙’을 태안문화원에서 개최하여 구술자 소개, 기록가 활동 과정, 과거와 현재 간척 사진, 면담 부분 영상 등 전시물을 통해 관람객의 관심을 이끌고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5개 지역 문화원이 통합성과공유회 개최 예정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제작한 자료집과 영상물을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과 지역민에게 태안 고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역사와 문화를 인식·고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한 기록가는 면담을 통해 지역과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스스로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척사업이라는 같은 주제로 구술채록을 진행하였지만, 구술자들의 생활 변화가 달랐기에 편향된 시선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간척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간이었고 앞으로 ‘아카이빙’이 중요한 역할로 확립하길 바라며, 다음 만나게 될 기록가와 구술자를 기대해 본다.

꽃으로 웃음 찾은 '성골 들꽃사랑 동아리'

한상준 보령문화원



부표 야생화 화분 만들기



마을하천 연꽃지 조성 모습



하천 연꽃지에 개화된 백련

마을공동체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기로 유명한 보령시 웅천읍 성동2리 마을에는 1년 내내 꽃향기가 넘쳐난다. 생활문화동아리 '성골 들꽃사랑 동아리'가 마을에 만들어지면서 꽃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야생화가 주는 소박한 감동으로 행복을 나누며,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서 꽃을 가꾸어 힐링하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골 들꽃사랑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비슷한 현상이지만 이 마을에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수고, 60세 이하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나이드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날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이런 점을 해소할 방안을 주민들과 고민하던

중 마을에서 꽃차체험농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이 마을회관에 꽃차를 가져와 마시면서 한분 두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였고, 마을에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된 시초가 되었다. 자연스러운 만남에 꽃차 시음 나눔 봉사라는 재능기부가 주민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보령시 야생화연구회를 2003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지역 주민의 야생화 관련 재능기부 교육은 꽃을 매개로 하여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활력소가 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에 한 걸음 더 나아가 2017년부터는 '성골 들꽃사랑 동아리'라는 정식 명칭으로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활동하게 되었고, 보령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공모사업에 선정 운영되면서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연잎차 만들기 활동 모습



메리골드 꽃차 만들기 / 맨드라미 꽃차 만들기

‘성골 들꽃사랑 동아리’활동을 소개하면?

‘성골 들꽃사랑 동아리’는 성동2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년층 중심으로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아리이다. 우리 꽃의 다양한 활용법을 익혀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꽃을 통하여 지역민과 소통, 협업함으로써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소외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향상시켜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을 동아리라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은 추위가 오는 시기에는 휴식기를 갖고, 봄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7시에 모임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보니 마을 회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 1회 정도는 마을 야생화 가꾸기 및 환경 정화 활동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마을 앞 하천에는 4년 전부터 연꽃지를 만들어 가꾸고 있는데 연꽃이 피는 7~8월에는 마을 주민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하천 연꽃지에서 채취한 백연을 이용한 연꽃차, 연잎차 만들기 꽃차교육은 동아리 회원에게 교육적 효과를 더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 재배한 맨드라미와 메리골드 등을 직접 채취하여 꽃차를 만르고 있고, 계절별 채취한 들꽃을 활용 다양한 꽃차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동아리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어 꽃을 이용한 꽃차를 만들고 꽃차 시음을 통한 어울림은 동아리 회원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요즘 마을 정원 가꾸기나 도시 정원 만들기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마을은 몇 년 전부터 하천에서 연꽃 정원을 만들었고, 야생화 동산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에 수달이 찾아오고 물고기가 뛰노는 생태하천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기반으로 야생화와 꽃차가 넘쳐나는 꽃마을을 만들 계획이며 꽃이 피는 꽃차마을을 만드는데 우리 동아리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통한 자연사랑,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꽃을 가꾸고, 꽃을 활용하여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꽃으로 사랑을 전파하고 싶다.

예쁜 실로 그리는 그림, 프랑스자수

최은영 온양문화원 프랑스자수 강사



충청지역 생활문화 전시회에서

2022년 처음 온양문화원 동아리를 결성하고 회원을 모집해서 1년 동안 회원들과 수를 놓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랑스자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발달한 자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흰 형겅에 흰 실로 자수를 하여 외관상 레이스와 비슷하게 보이며 자수법은 약 300여 가지에 이릅니다. 현재는 프랑스자수를 서양자수나 유럽자수로 불리는데 적절하지만, 일본에서 주로 프랑스자수라고 불렀고, 대부분의 서양식 수예기술은 일본을 통해 들어왔기에 한국에서도 보편적으로 프랑스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자수는 도안위에 실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티치로 수를 놓는 서양자수입니다. 실로 그림을 그리듯이 원하는 예쁜 실로 수를 놓다 보면 아름다운 자수의 세계에서 나만의 작은 정원을 꾸미는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자수는 화려한 스티치와 입체자수가 돋보이고 일상



프랑스자수 동아리 활동



문화가족 한마당잔치 전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소품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는 자수입니다.

수를 놓는 실 또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모양이든 마음대로 독특한 도안을 창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수기법 또한 응용할 수 있는 스티치가 다양하고 나만의 스티치를 만들수도 있어서 개성 넘치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회원들과의 교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배운 기법으로 혼자서도 응용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회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청양에서 개최한 “충남생활문화축제”때 아플리에라는 명칭으로 전시회를 했었는데, 1년동안 수강하신 회원분들과 함께라서 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되었으며, 온양문화원이 전시회 대상을 받은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전시회를 찾아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타 지역에서 전시한 작품보다 훨씬 작품성이 좋다는 칭찬이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10월 23일에는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지역 생활문화 전시회에도 참석해서 온양문화원의 프랑스자수반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화려한 공연과 체험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온양문화원 문화가족 한마당 잔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공연과 더불어 프랑스자수 전시를 가졌으며, 함께하는 잔치에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 되었던 기분이 한결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몰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온양문화원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에도 많은 회원들과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충남생활문화축제 전시

먹으로 통하는 서예와 사람사이

이연주 서산문화원

서예란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조형예술이다. 서예는 한자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서산에도 이러한 역사를 이어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안다위한묵연실이다.

안다위한묵연실은 서산시 음암면 안다위골에 위치하고 있다. 효계(曉溪) 박성호 선생님의 지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총 10명의 회원들이 지규옥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다위한묵연실은 안다위라는 지명에 서예를 통해 연이 된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먼저 서예라는 활동을 접한 후에 안다위한묵연실을 찾는 회원들도 있지만, 대체로 퇴직 후 새로운 취미활동을 찾기 위해 방문한 회원들이 주를 이룬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곳에서는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에 모여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연마다 전시를 열며, 전국 공모전, 서화국제교류전, 한중일서예교류전 등에 참가하여 작품성 또한 높여오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019년부터 활동 및 전시들이 3년동안 잠정 중단되었지만, 올해 2022년 11월 29일에는 안다위한묵연실 옆 비닐하우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를 통해 회원들은 그간 갈고닦아왔던 서예 작품들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다.



안다위한묵연실



2022년 안다위 한묵연실 전시



2022년 안다위 한묵연실 전시 모습

글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몸을 기울여 붓과 종이에 집중하며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게 된다. 서예는 이처럼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회원들은 서예 활동은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창작의 시간이 아닌 서로 간 오가는 정담들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지규옥 회장은 “회원들은 서예를 통해 물질적인 것을 연자는 욕심이 없어요. 서예를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서예는 글과 나, 나와 타인이 소통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매력에 사람들이 서예에 애정을 갖고 글 쓰는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서예는 자기 수양과 교양, 학문을 담은 높은 경지의 예술 작품이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닌 화면구성, 여백, 선과 면, 색감을 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담는다. 때로는 말이 주는 힘보다 글이 주는 감동이 강할 때가 있다. 바로 글 속에 작가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원들은 안다위한묵연실에서 마음을 담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회원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글씨를 통해 담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뉘고 있다.

안다위한묵연실 연혁

- 1) 2002년 시작하여 19번 회원전 개최
- 2) 전국 서예공모전에서 18명 대상 수상
- 3) 한국서예비림박물관(예산신양면소재) 20명 입비(비세움)

논산문화원 시낭송날개달다 동아리

한성환 논산문화원

어떤 때에는 “또드락 또드락 똑딱 똑딱~” 다듬이소리, 어떤 때에는 “둥~ 둥~ 둥~” 큰북 울림소리, 그리고 어김없이 “가갸거겨 고교구교” 볼펜을 물고 함께 시작하는 시낭송 발음 연습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문화원 다목적홀은 어김없이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번 충남문화 문화공감에 소개해드릴 주인공 논산문화원 시낭송날개달다 동아리는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 마을음악회, 산사음악회, 교회의 작은 음악회 등 찾아가는 시극 공연으로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어머니의 은혜를 소재로 하는 부모, 어머니의 기도는 물론이고 이 지역 출신 시인들을 소재로 하는 다수의 시극이 평생



학습 발표회와 야행 공연 등 큰 무대에서도 호평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낭송날개달다 동아리는 처음 문화학교를 개강하며 나영숙 선생님의 지도로 시낭송 교실에 참여하던 13명의 회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했다. 2019년 1월 서울 길상사와 심우장, 윤동주 문학관 탐방을 다녀오는 길에 수업이 없는 공백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 시극 공연 봉사활동 전개에 의기투합한 것이다. 지도 강사 나영숙 선생님도 스스로 회원이 되어 낭송요령 지도와 시극 대본 등을 연출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었지만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연습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인근에 빈 사무실 공간이나 음식점, 카페, 찜질방 등 유희 공간에 모여 소리 죽여가며 소곤소곤 연습한 때도 있다. 2020년 연초부터 불어닥친 2년 여간의 코로나 역풍에는 선생님과 수강생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줌 수업과 SNS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노력하였지만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거리두기로 마음 놓고 공연과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어렵게 형성된 학습 열기에 찬물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2022년부터 논산문화원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정상 수업은 물론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과 문화행사 현장에서의 공연이 열리며 시낭송날개달다 동아리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올해 8월 강경 죽림서원과 12월 열린도서관 평생학습 발표회 “부모” 시극 공연, 8월 강경 야행 박용래 시인 “고향을 찾아서” 시극 공연, 11월 논산 문학제 김관식 시인 “소롱골에 누워 하늘보다” 시극 공연이 성황리에 발표된 바 있다. 연말에는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2022년 논산 시민과 함께하는 詩 콘서트가 논산문화원 다목적실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시 낭송으로 시의 대중화에 힘쓰며 시극 등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작지만 보다 큰 동아리 활동에 지역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그라시아 클라리넷 앙상블

이윤호 단장

그라시아 클라리넷 앙상블은 목관악기의 대표적 악기인 클라리넷을 사랑하고 그 악기의 소리가 너무 좋아 배우게 되었고, 그 배우이 계기가 되어 함께 연주하는 앙상블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하나로 모여져 지금의 앙상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악기와 같은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마웠고 한 마음으로 모여져 팀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생각으로 저희 연주단체는 '감사'라는 뜻의 스페인어 그라시아(Gracia)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앙상블 단원들의 열정이 너무도 뜨거워서 창단한 2018년 그 해에 모임과 동시에 바로 저희에게 클라리넷을 지도해주셨던 임채선 음악선생님과 함께 창단 첫 연주회를 위한 준비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클라리넷 연주를 위한 운지(運指)도 서툴렀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기초를 다지고 선정한 곡의 합주를 해가며 창단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 12월 각고의 노력과 준비 끝에 진행된 첫 연주회!!! 가슴 떨리고 손 떨리는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떨림이 잊혀

지지 않을 만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첫 연주회를 마치고 단원들은 해냈다는 성취감과 앞으로 더 아름답고 멋진 소리를 만들어 갈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기대 이상의 호응과 성원은 다음 공연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계획과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에서 만나 클라리넷을 연습하였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연습을 거르지

않고 진행해 왔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무대에 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진 관내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나 봉사 연주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서산의 클라리넷 연주단체와의 협연 공연도 경험하면서 저희 앙상블의 실력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저희 그라시아 클라리넷 앙상블에게 크나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6월 이후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합주 연습을 시작했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정기 연주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와 구성의 연주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공연장 무대가 아닌

당진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멋진 무대를 구상하였는데 바로 카페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정기 연주회 개최라는 다소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Forest에서 느끼는 커피와 클라리넷의 겨울 향기”라는 제목의 공연으로 지난 12월 4일 카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예상 밖의 많은 관객들이 카페를 채웠으며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기와 부드럽고 아름다운 클라리넷 소리가 어우러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초대 손님과 함께 예상하지



못했던 당진생활문화센터장님이신 김윤숙 당진문화원장님의 깜짝 참석 그리고 카페에 오셔서 알게 된 관객들,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라시아 클라리넷 앙상블은 이번 카페 공연을 계기로 또 한번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2023년에는 보다 재미나고 다양한 시도와 있는 공연을 기획하여 관객들과 격 없이, 더 가깝게 소통하는 공연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벚꽃 잎이 휘날리는 봄의 정취가 있는 음악회와 사랑과 음악 치료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연주도 준비해서 관객과 단원 스스로가 즐기고 행복해지는 그런 음악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원뿐 아니라 저희들과 뜻이 맞고 음악을 사랑하고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당진생활문화센터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당진에서 멋진 클라리넷 동아리가 되도록 깊은 애정으로 연주하겠습니다.



메아리합창단



양정남 회장님



이미애 선생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면 - 삶꽃

김소연 금산문화원

땡볕을 내리쬐던 여름날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가을날이 시작되는 날, 금산 금빛시장에서 어여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귀를 기울여보니 노래는 '어느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였다. 합창단원의 목소리로 들으니 금산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만 같다.

풀잎 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 주고파
넋가에 고무신 벗어 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는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녀의 슬픈 사랑 얘기

금빛시장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었던 여성분들은 금산문화원의 메아리합창단원들이다. 공연 중간 메아리합창단의 양정남 회장님이 메아리합창단을 소개하셨다. 메아리 합창단은 2004년 음악을 사랑하는 여성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창립하였으며, 1968년 초창기 금산문화원에서 시작된 '금요음악회'가 그 기원이라고 한다. 현재는 이미애 선생의 지도에 따라 여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모니를 이루고 있으며 대중적인 노래 뿐 만 아니라 민요, 동요 등을 많이 부르는 것이 특색이라고 한다. 음색은 제각각이고 나이와 삶의 정황과 살아온 내력도 제각각이지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기 위해서 함께 노래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노래의 메아리 이면서 삶의 메아리인 합창단의 노래는 어린 손자에게 들려주는 동화처럼 아름답다. 그리고 메아리합창단의 이미애 선생님은 중간중간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단원들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지휘한다. 올해부터 메아리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이미애 선생님은 단원들의 목소리가 좋아 수업이 있는 날만을 기다린다고 한다. 메아리합창단을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들어온 단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원동력은 서로를 향한 배려에서 오는 것 같다.



바람에 흠날리는 청사초롱
따뜻한 미소를 지닌 메아리합창단원

어느 60대 부부이야기

화가

메아리합창단의 다음 곡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여름의 날씨가 남아있던지라 가을 바람이 조금 일찍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다고 한다. 인사말을 듣기라도 했을까? 노래가 시작되고 금빛시장을 수놓은 청사초롱이 바람에 흠날리며 조용히 화답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있네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이어진 다음 노래는 어느 60대 부부이야기였다. 후자는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한다. 가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모두 우리의 부모님들을 떠오르게 해서 이지 않을까?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벅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렵듯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아들 대학 시험 뜬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렵듯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감에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동요, '화가'가 이어졌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소녀같은 모습으로 들려주시는 동요가 정겹게 그리고 포근하게 다가왔다.

맑게 개인 공원에서 텍수염 난 화가 아저씨
나비가 훨훨 날아가고 꽃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랄랄랄랄라 랄랄 랄랄랄라 콧노래를 불러가며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었어요 맑고 푸른 동심을

한국의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영화처럼 들려주는 메아리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오래된 동화처럼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서천 천아트동아리

김정환 서천문화원



하얀 천위에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들이 어느덧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올 한해 문화원에 피었던 수많은 꽃 중 천에 꽃을 피운 서천 천아트 동호회. 동호회 회원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어느

덧 커튼이 되고 쿠션, 악세사리, 인테리어 소품이 되었습니다.

천이 물감을 만나면 요술을 부리듯 작품이 되는 천아트, 올해로 2년차인 서천 천아트 동호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등 우리 주변 분들이 처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지 2년차, 지금은 그때의 떨림과 긴장감이 아닌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되는 것을 매순간 느낄수 있는 열정이 넘치는 동호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천아트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회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점점 활성화가 되어가는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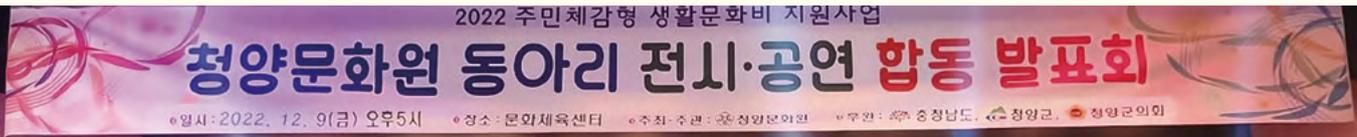
회원들에게 물어보니 '일상소품에 내 그림이 자연의 향기처럼 입혀져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그림이란 즐겁고 유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그린 선 하나, 점 하나가 모여 작품이 되고 그 작품들이 내 일상생활로 녹아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천아트. 어떤 미술이 이보다 더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천아트라 가능한 것이겠죠.

지금 서천문화원에서는 연말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화려함을 선보이는 천아트 전시는 관람객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다 할수 있습니다. 몇 달동안 작업을 한 몇십점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있는데 누가 이 작품들을 배운지 겨우 2년차의 실력이라고 믿겠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프로가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만한 작품들, 벌써 이만한 수준을 선보이고있는 서천천아트 동호회!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늘푸른악단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전미진 청양문화원

청양 문화원은 2022년 5월부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매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매주 목요일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는 동아리 '늘푸른 악단'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소개 하려 합니다.

2017년 9월에 창단이 되었고, 드럼, 색소폰, 아코디언, 기타, 키보드 오카리나 등으로 구성 되어져 있으며 평균 연령대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불기 힘든 색소폰까지 연주하며 낮에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목요일 밤에는 다 같이 모여 연습하며 배움의 열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공연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에 한층 더 고취시키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동아리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악기가 모여 아름답고,



흥겨운 연주를 하며 서로 배울수 있고 알려 줄수도 있는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라며 만족해 하십니다.

또한 동아리를 지도해주시는 남기진 강사 선생님은 중학교 음
악교사로 활동하신 뛰어난 실력과 훗칠하고 미남이신 선생님
이며 지휘학도 같이 배우셔서 열정 또한 넘쳐나고 회원들이 이
해하기 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고 계신
답니다.

청양문화원의 늘푸른 악단은 날이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고 있
으며 청양의 다양한 공연에 초청되어 바쁜일정을 소화하기 어
렵다고도 말씀하시며 늘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답니다. 물
론 수업 또한 열정으로 하시고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받는 동아리가 되길 바랍니다.
늘푸른 악단 오케스트라 화이팅!!!!



묵향 그윽한
힐링의 공간으로~

묵향담은 우리그림

김숙희 홍성문화원



매주 화요일 9시 조금 넘으면 3층의 강의실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문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화선지와 붓통을 메고 활기찬 발걸음으로 문화원을 들어선다.

문인화는 그림을 직업으로 그리지 않는 순수한 문인이 그린 그림으로 왕실의 귀족이나 사대부, 또는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들이 그리는 그림을 문인화라 한다.

문인화는 대부분 먹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그린 후에 채색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며 먹물에 물로 농도를 맞춰가며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간다.

먹물의 향을 묵향이라 일컫는데 묵향의 맛을 아는 사람은 묵향을 잇을 수가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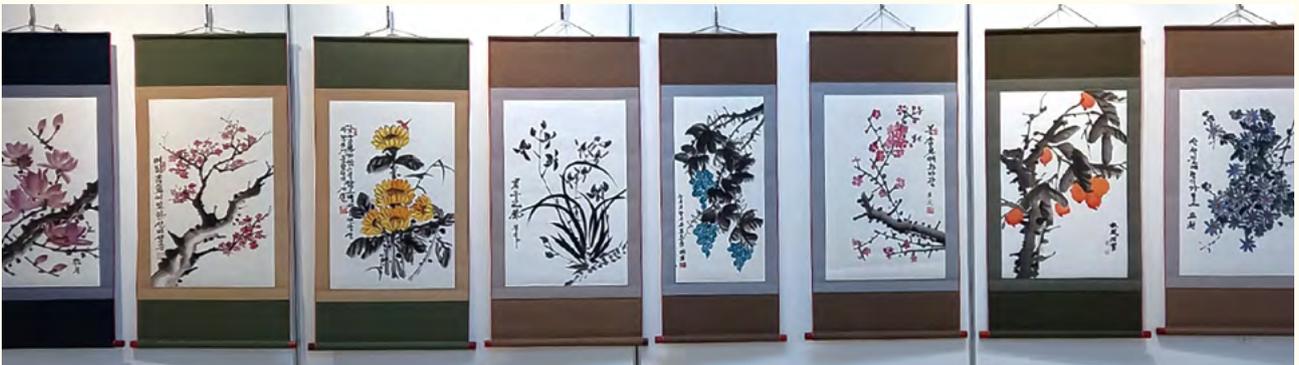
홍성문화원은 매주 화요일이면 청사 내 묵향이 감돈다.

묵향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만의 향기를 담으며 그림을 완성해 간다.

하얀 화선지 위에 나만의 세계를 펼치는 <묵향담은 우리그림> 동아리 이름만큼이나 예쁜 양정자 선생님을 비롯하여 회원들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낸다.

<묵향담은 우리그림>의 동아리 회원들은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충청남도 생활문화 동아리 발표에도 참여 하였고, 어르신 및 아동 교육봉사 활동과 티셔츠 그리기 체험 학습 활동과 홍성군민 문인화 부채 나눔 행사활동, 홍성군 문화시민공간 전시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다.





예빛아리무 무용단

이충환 예산문화원

우리 예술문화의 그 향기를 찾아서 우리 춤활동하는 예산문화원 대표 동아리 예빛아리무 무용단을 소개합니다.

2018년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 한국무용이 신설되어 지금까지 고귀한 우리 춤의 흥과 멋에 취해 함께 모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역에 전통무용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예빛아리무 무용단은 조선시대 민속무용가이자 한국 근대 춤의 아버지인 충남 홍성 출신의 한성준 전통춤 정신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준 명무는 우리나라의 신무용의



선구자로 민속춤을 무대예술로 승화시킨 인물로 그분의 태평무, 부채산조, 부채춤, 입춤 등을 맹은섭 강사 지도하에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춤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통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뽄뽄 뽄뽄 예빛아리무는 자타공인 예산을 대표하는 전통무용동아리로 지역 행사 및 축제, 요양원 등을 찾아다니며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빛아리무 무용단의 공연실력은 무서운 성장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충남생활문화축제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2022년 10월 제2회 예산군수기 국악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애향심과 우정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는 예빛아리무 무용단을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초청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룡시 전통춤 연구회

김중호 충남문화원연합회

충남 계룡시 전통춤연구회는 전통춤을 익히고 더 나아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공간을 찾아 재능으로 봉사하고자 결성된 동아리이다.

그동안 전통춤연구회는 유우정 강사를 비롯한 10여명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지역 내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 재능봉사 활동을 하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 공유에 앞장서 왔다.

지난 9월 충남생활문화축제에서는 농악적인 요소와 무용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장단과 가락, 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정적인 멋과 역동적인 흥을 느낄 수 있도록 재구성한 진도북과 소고춤 합무로 우수상을 받았으며, 10월에 있었던 범충청권생활문화축제에서도 멋들어진 한복 율동에 우렁찬 장단가락의 북소리가 합쳐진 합무로 주무대 메인행사 대미를 장식하여 관중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충남지역 예선 온양문화원 「도담푸리 무용단」 본선 진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충남지역 예선'이 지난 7월 29일(금요일)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방방곡곡 숨어 있는 어르신 문화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예선에서는 충남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단체 23팀, 4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벌여 온양문화원의 '도담푸리 무용단'이 1등인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하였다.

도담푸리 무용단은 6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황혼의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 오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그 해답을 부채를 이용한 아름다운 춤사위로 표현하였다.

꽃봉우리에서 꽃을 피우고 꽃잎을 날리며 나 스스로가 향기를 내는 꽃이 되어 황혼의 꽃을 피우는 도담푸리 무용단은 지난 10월 22일(토)에 충남 대표로 본선 경연에 참여하여 「샤이니재능상」을 수상하였다.



제2회
2022 충남도민 문화의날 기념식 및
생활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회장 유환동 흥성문화원장)와 청양문화원(원장 임호빈)이 공동 주관하고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후원한 '제2회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생활문화축제'가 '문화로 하나 되는 충남, 문화로 행복한 청양'을 주제로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청양읍 백세 건강공원에서 800여 명의 청양군민과 충청남도내 문화원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생활문화인구 저변 확대와 생활문화 발전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자 하는 이번 행사는 의식행사인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과 문화공연인 충남생활문화축제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첫째날에는 천안시동남구 천흥 율려회의 생황 연주로 시작하여 5개 팀의 공연동아리들의 경연대회와 도내 주요 기관장, 생활문화 동호인,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충남문화원대상으로는 온양문화원이 받았으며, 충남문화발전 유공자로 10명이 수상하

였다.

둘째날에는 전날에 이어 25개팀의 경연동아리들 경연대회 및 생활문화 작품 전시·체험, 문화공연 등이 진행되었으며 대상으로는 통기타 포크송을 부른 온양문화원의 소리향기가 수상하였다.

한편 전시 및 체험 마당은 시군문화원을 대표하는 작품전시 및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5개 전시 체험장 중 12개 이상 체험한 관람자에게는 경품을 제공하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온양문화원(원장 정종호)은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고무신 던지기,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이틀 동안 함께하여 가을날 청양 지천에서의 지난날의 추억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

충남의 생활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로 하나 되는 충남을 만들고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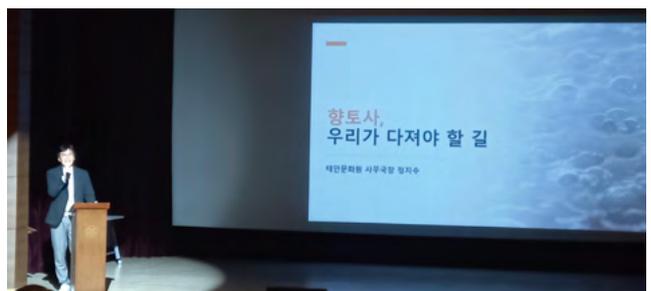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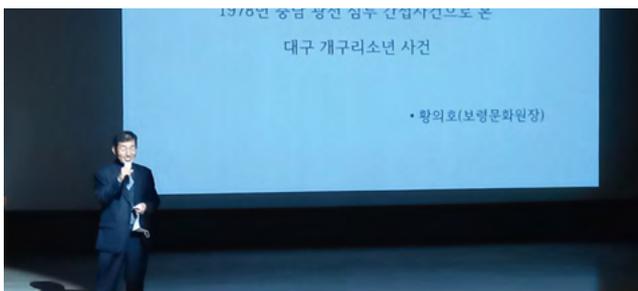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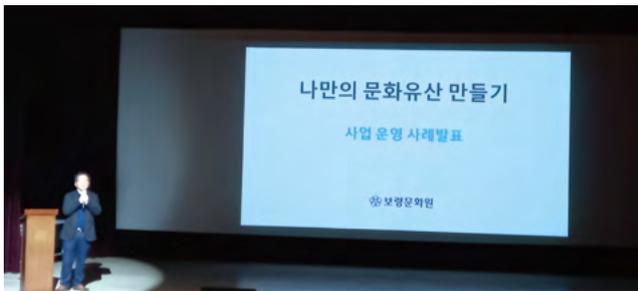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충남문화 학술발표회 개최

충남문화원연합회는 도내 문화원의 향토 역사 연구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29일 홍성문화원 공연장에서 70여명의 도내 문화원 직원 및 향토 사학자가 함께하는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충남문화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시군 문화원 국장들은 향토사례 발굴 사업 추진 경위 및 발굴 현장에서의 에피소드와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아울러 황의호 보령문화원장은 문화원 직원들의 향토사료 발굴 및 향토역사 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1978년 광천 침투 간첩 사건으로 본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사례를 들어 향토 역사 문화 주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사료 수집·정리 방법 등을 특강하였다.



지속가능한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를 위한 화합의 축제 범충청권 생활문화 축제 4개 시도 공동개최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를 통한 생활문화인의 활동 공간 제공으로 생활문화 활성화하고자 지난 10월15일 대전광역시 근현대사 박물관 광장에서 범 충청권 생활문화 축제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였다.

충청권 지역내 생활문화인과 전문예술가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전시·체험 공간 운영 및 기획공연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참여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축제를 진행하였다.

충남에서는 6개시군 문화원에서 12팀의 동아리가 참석하였다.

주무대 메인 행사는 계룡시 전통춤 연구회의 진도북과 소고춤 합주가 장식하였으며,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행사로는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셋잇단음표, 당진문화원 판타지아 난타, 금산문화원 공명 아우라, 홍성문화원 홍주 기타랑 팀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생활문화축제 동호회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천안시 서북구 문화원의 꽃가치, 홍성문화원의 보광서각회, 향목회, 차사랑, 온양문화원의 아뜰리에, 당진문화원의 드림보테니컬, 계룡시 빛다 동호회가 참여하여 범충청권 생활문화 화합에 일조하였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

2022 민속예술제 “다시 우리의 것”

천안지역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전승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22 민속예술제’가 지난 22일 성환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이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다시 우리의 것’이란 슬로건을 걸고 천안 대표 민속놀이인 ‘입장거북놀이’시연을 시작으로 창극 ‘천안의 소리’, ‘대금·태평소·가야금·피리 등 전통악 연주, 경기창과 경서도창, 한국춤, 타악퍼포먼스 등 우리 고유의 민속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공연은 서북구문화원 개원 59주년을 기념하는 성격으로 열렸는데, 천안만의 독창적인 전통을 살리면서 지역민이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보다 새롭고 다채로운 우리의 것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함께한 5백여 시민들의 공감의 장을 마련한 축제였다. 이종석 원장은 대회사에서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꾸준히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정리, 분석을 통해 민속과 민속놀이를 프로그램 조직 및 공연 콘텐츠로 확산해 가는 일에 주력해 왔다.”면서 “본 예술제를 통해 천안지역 민속이 체계적으로 다양한 발전방안이 제시되고, 발표된 자료들이 지역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 민속예술제는 농악, 민속무용, 민속극 등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예술을 발굴하고 보존·전승 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이어오다가 1995년 예산문제로 개최가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부활



한 천안지역 유일의 민속축제이다. 신광식 문화원사무국장은 “청소년들에게는 향토문화의 뿌리를 일깨워주는 교육이 기회가 되고, 지역민들에게는 화합의 놀이마당으로 승화되어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이어갔으면 한다.”고 했다.



공주문화원 현대수 사무국장은 지난 9월 30일(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2022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현대수 사무국장은 33년간 공주문화원에 재직하면서, 지역문화예술 발달에 헌신 봉사하여 공주문화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

공주문화원

현대수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이날 열린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공 포상은 지방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함으로써 지방문화인의 자긍

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발전에 구심체 역할을 담당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수 사무국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예술인들의 활동 증진을 위해 힘쓴 직원들의 노고와 문화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더 가까이 문화로 행복한 공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에서 충남 대표로 출전한 조옥순 문화관광해설사가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공주문화원

조옥순 공주문화원 부원장,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 대회 수상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한 이 대회에서 조옥순 해설사는 이날 '백제무령왕릉묘지석'이라는 주제로 출전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조옥순 해설사는 부여에서 태어나 공주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공주문화원 부원장이자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옥순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백제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한 '날아라 문화유산답사 자전거'를 발간했다. 또한 한국, 공주의 역사교육과 결혼이민 여성들의 귀화 시험을 합격을 위한 '엄마가 들려주는 공주역사이야기'를 발간해 다문화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보령문화원

UCC 영상 공모전 시상식

보령문화원(원장 황의호)은 12월 15일 문화의 전당 소강당에서 「제1회 보령의 문화재-UCC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대회 공고 이후 접수된 작품들 중 우수작품 10점을 선정하여 포상한 이날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대상은 '대전폴리텍 영상디자인'팀이 차지하였다.

대상(보령시장상)작으로 선정된 '유려한 역사와 문화의 흔적, 보령'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선비 복장의 젊은 남성이 보령의 문화재 이곳저곳을 탐방하는 모습을 슬로 비디오 형식으로 담아내었고 드론 촬영을 통한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화재의 수려함을 담아내 빼어난 영상미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청운대학교의 김봉덕 교수는 "보령 문화재의 가치를 이곳저곳으로 연결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였으며, 뛰어난 영상미와 특수효과를 접목해 작품수준이 상당히 높았

다"고 수상작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수상작들에 녹아있는 보령시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런 대회를 계기로 보령의 우수한 문화재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다음은 수상작 리스트이며, 아래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하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제1회 보령의 문화재-UCC 영상 공모전 수상작

구분	시상	작품 제목	참가자(단체)명
대상	보령시장	유려한 역사와 문화의 흔적, 보령	대전폴리텍 영상디자인
최우수상	보령시의회의장	만세보령의 문화재를 담다	최민준
우수상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 발자취	박수안
		보령을 담다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장려상	예총 보령지회장	보령에는 보물섬이 있다	오상우
		보령 문화재 보러오령	추연아
입선	보령 문화원장	즐거 보령! 문화재 여행	최세범
		보령 UCC	김혁동
		보령으로 놀러와보령	안효진
		시간의 아름다움-보령 성주사지	정다원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 '2022 충남문화원상 대상' 수상

공연부문 '소리향기 기타동아리' 대상, 전시부문 '뜨개쟁이 어르신 뜨개동아리', '아뜰리에 프랑스자수' 우수상 수상, 이지윤부장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쾌거!

온양문화원(원장 정종호)은 지난 23일 (금)~24일(토), 청양백세건강공원에서 개최된 충남도민문화의날 기념식 & 충남생활문화축제 (이하 축제)에서 '2022 충남문화원상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대상 수상은 사업부문, 경영평가 부문, 각종성과부문 평가 등의 집계에서 충청남도 15개 문화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결과로 이번 축제에서 시상식을 갖게 되었다.

'2022 충남문화원상 대상'수상은 경영평가와 각종성과 부문에서 우수함을 인정받고, 4.4아산독립만세운동 추모제 및 재현행사, 맹정승 청백리 기념행사, 향토문화연구소운영, 우리문화즐기기 사업, 신년인사회, 민속대제전, 한시백일장, 락페스티벌 달그락,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 근현대구술채록사업, 아산시민역사교실, 문화강좌운영, 생활문화센터운영 등 여러 사업 운영 부문에 대하여 월등한 평가를 받았으며, 공모사업인 어르신문화프로그램 (10년연속)과 꿈다락토요문화학교 (9년연속) 선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양일간 펼쳐진 이번 축제에서 온양문화원은 '2022 충남문화원상 대상' 뿐만 아니라 전시 및 경연대회에서도 '소리향기 기타동아리'가 공연부문 대상을, '뜨개쟁이 어르신 뜨개동아리'와 '아뜰리에 프랑스자수 동아리'가 전시부문 우수상을 함께 수상하는 경이사를 맞기도 하였으며, 이지윤 사업부장은 우수한 사업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함께

이루었다.

정종호 온양문화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충남문화원상 대상 수상은 역대 문화원장님들이 다져놓은 초석위에 이사회와 회원을 비롯한 문화가족 모두의 격려와 성원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상 문화원의 영광에 가리지 않도록 아산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온양문화원은 지난 1957년 개원 이래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명명되어 65년동안 아산의 지역 문화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향토조사 연구, 지역문화행사 개최, 생활문화센터운영 및 강좌,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22 충남문화원상 대상 수상후 기념촬영



이지윤부장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공연부문 대상 '소리향기 기타동아리' 기념촬영

논산문화원

권선옥 원장 당선

지난 6월 30일 논산문화원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후보인 권선옥 현 원장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날 이창구 임원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권선옥 원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후보자를 각각 승인하였다. 이어 회원들의 축하 속에서 당선된 원장과 이사, 감사에게 당선증이 교부되었다.

권선옥 원장은 그동안 내부 역량 강화와 회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공연 및 전시 등 문화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2021년 전국문화원 종합경



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선옥 원장은 “지난 4년간 문화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논산시청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시민들 또한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제한을 받아 뜻한 대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새로 4년간의 임기는 이렇게 실현하지 못한 여러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민들이 논산문화원을 통하여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골목마다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논산을 만드는 데 열정과 정성을 다 바치겠다.”고 하였다.



당진문화원

충절의 표상 남이흥 장군 재조명을 위한 학술 세미나 성료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는 △충장공가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충남 역사문화연구원 홍제연 책임연구원) △충장공 남이흥 가문의 민속의례와 전통(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남기은 소장) △충장공 남이흥 유적의 정비 및 활용 방안 검토(당진시청 고대영 학예연구사) △충장공 정신의 선양을 위한 무예체험 교육 및 문화활용 자원화 방안(최재근 문화예술학박사)로 주제 발표가 먼저 이뤄지고 종합토론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토론도 열려 세미나가 종료되었다.

김윤숙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세미나는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인 남이흥 장군은 물론 장군의 유물과 유적, 충장공가의 민속의례와 전통, 그리고 더 나아가 충장사를 무인종가 호연

지기 체험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세미나 내용을 이정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이어서, 관광자원으로서 남이흥 장군과 충장사, 남이흥장군문화제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기초발제자로 나선 이해준 명예교수는 “충장공 남이흥 일대기에만 집중해 한정된 연구에 그치지 말고 좀 더 폭을 넓혀 학술조사와 연구발표회를 병행해야 한다”며 충장공 정신을 계승, 활용하는 차원에서 동화나 소설, 이북(e-book) 등의 교육자료 제작 등을 결합 것과 유물·유품 전시 등의 선양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진문화원(원장 김윤숙)은 지난 12월 2일(금) 1층 공연장에서 ‘2022 남이흥 장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이흥 장군의 생애에 대해 재조명하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세미나는 공주대 이해준 명예교수가 ‘충장공 남이흥의 생애와 정신’을 주제로 기초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총 4개

금산문화원

제24회 창현회 한국화전

제24회 창현회전이 금산문화원 주최, 창현회 주관으로 청산아트홀에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창현회 지도교수 연파 이종필 선생의 ‘봄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작품을 비롯한 김영목, 이광희, 오은순, 유영기, 임순자, 안미라, 김세영, 배재용, 임재선, 서경남, 박성덕, 변대봉 회원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어 관람객을 맞이했다.

11월 17일 오후 3시에 개최된 개막식은 내빈소개, 김영목 고문의 창현회 소개, 배재용 회장 인사말, 박범인 금산군수 축사, 장호 문화원장 축사, 테이프커팅, 작품 감상 순으로 전개되었다.

박범인 금산군수, 최명수 군의원, 송영천 군의원, 정기수 군의원, 장호 문화원장, 이정일 금산예총 회장,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 전병만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운암 김영목 고문은 창현회를 소개하기를 “1999년에 창립되어 2022년까지 24번째 창현회전을 개최하면서 금산의 한국화 부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파 이종필 선생님과 함께 한국화와 문인화의 여정을 함께해 온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변함없이 창현회와 함께 해주신 박범인 금산군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함께해준 장호 문화원장께도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내가 마이크를 잡게 되어 소중한 내빈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시중유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畫中有詩)라는 말이 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의 삶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자연을 찾아 휴식하듯이 동양 정신의 깊고 숭고함을 추구하는 산수화와 문인화를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창현회 전시전

라고 소개말은 건넸다. 한국화가 주는 여유로움이 전해지기를 하는 마음에서였다.

다음으로 박범인 금산군수의 고마운 축사가 이어졌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창현회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군민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배재용 회장과 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는 금산도 문화예술이 강해져야 한다. 창현회가 발전하는 만큼 금산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것이니 창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라고 하였다.

장호 문화원장은 축사를 통해 “창현회 작품이 많이 원숙해지고 성숙해진 것 같다. 더 바람이 있다면 금산의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그렸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창현회 회원 모두 작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라고 하였다.

24년 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창현회를 지도해온 연파 이종필 교수는 “코로나로 어려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완성해준 창현회 회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그윽한 수묵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잊기 쉬운 여유와 삶의 지혜를 새롭게 찾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는데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창현회는 1999년에 창립하여 연파 이종필 선생의 지도 아래 현재까지 24회

의 전시회를 열었다. 창현회 명칭은 그윽한 수묵의 세계와 그림으로 표현되는 자연들 속에서 마음이 편하고 정신이 화창하게 드나드는 곳이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 있다.

1999년 금산문화학교 한국화반을 수료하고 첫 전시회를 갖으면서 출발한 창현회는 각종 공모전에도 참가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제24회 창현회 한국화전을 맞아 회원들은 군민들과 한국화로 소통하기 위해 금산천 데크길에 장기 전시할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준 박범인 군수가 작품 하나하나의 설명을 들어주고 함께해주어서 참으로 뜻이 깊은 제24회 창현회전이였다. 해마다 새로운 신작을 준비하여 펼쳐 보이는 창현회 전시회가 군민 속으로 들어가 한국화에 대한 안목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예담 서경목



부여문화원

부여문화원 전국향토문화공모전 특별상 수상 정찬국 원장은 장관 표창 받아

부여문화원(원장 정찬국)이 대한민국 지역문화대전 제37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부문에서 특별상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상을 수상했다.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향토사가의 연구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부여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은 2019~2021년도 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받아 3차에 걸친 심사와 공개 검증을 통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부여문화원은 『부여의 누정이야기』, 『부여가요대전집』, 『부여의 군수현감 선정비』 발간 등 일련의 특색있는 연구실적으로 영예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30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시상식’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정찬국 부여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아 겹경사를 맞았다. 정찬국 문화원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부여군의 문화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모든 부여군민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며 “앞으로 문화원을 지역학 연구 및 생활문화 센터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여문화원은 지난 2020년 대한민국문화원상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홍성문화원

홍성을 빛내는 13인의 미술전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홍성문화원의 8번째 초대전인 ‘홍성을 빛내는 13인의 미술전’이 열렸다. 이번 미술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활동하고 있는 출향 미술인들의 수준높은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시회는 클래식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작가 및 내빈들과 함께하는 및 테이프 컷팅, 축사, 작가소개, 작품소개 및 다과의 순으로 이어졌다. 홍성문화원 유환동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홍성은 충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예향의 고장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심어주고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문화로 행복한 홍성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힘주어 말했다. 13인의 미술작가를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이영복 화백은 “따뜻한 고향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뜻 깊은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문화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화 서양화 애니메이션 조각 디자인 분야 40여 점이 전시되었으며, 고경일 김석기 김성준 김익현 김종석 서혜경 신운진 이석보 이영복 이환영 조운서 최장철 최희수 등 유명 중견작가 13인이 참여하였다.

예산문화원

올해도 예산군 문화발전을 위해 빛났다 도지사상 등 4건 수상

예산문화원은 2022년 한 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통해 예산군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예산군 등에서 총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올해 예산문화원은 40여개의 문화강좌 운영과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회 호대회, 추사 김정희 선생 선양 서화전, 마을 동계 지원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고 지역의 대표축제인 예당호 해맞이 행사, 윤봉길 평화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개최로 총 17억 규모의 보조 사

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7년 4월부터 예산군 작은영화관인 예산시네마를 위탁 운영하여 올해 3월에는 누적 관람객 3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예산문화원 구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12월에 개관한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은 다목적 강당, 북카페, 동아리실, 스튜디오, 밴드실, 개인연습실, 다목적교육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 강당을 제외하고 전면 무료로 개방 운영되고 있다.



예산문화원 직원들은 문화예술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총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충청남도지사상 홍성희(사원) △충청남도의회의회장상 이충환(차장) △예산군수상 이충환(차장), 최유주(사원) 이 수상하였다.

김종옥 원장은 “예산문화원 직원 모두가 예산군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좋은 결실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태안문화원

제8대 고종남 태안문화원장 취임

9월 14일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제8대 고종남 태안문화원장이 취임했다.

이날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제7대 정낙추 원장은 “지난 4년은 태안의 지나간 역사와 오늘의 역사를 공부하는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서른두 살 먹은 태안문화원의 역사는 역대 문화원장과 문화 가족, 임원 여러분이 정성으로 쌓아 올린 탑으로, 이 탑은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단단하고 품격 있게 쌓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쌓을 태안의 정신문화 탑”이라면서 “저는 이

탑에 작은 돌 하나 없은 태안 군민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태안문화원은 새 원장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태안문화원 기를 인계받은 제8대 고종남 신임원장은 “태안문화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원장을 중심으로 문화 가족 여러분들이 태안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태안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원의 조직 능력을 위한 임원 분과 위원회 구성·운영, 문화예술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향토사 발굴 및 보전, 문화재의 계승 발전, 역사 거리 조성, 태안군만의 특색 있는 축제 추진, 문화 가족 배가운동의 계획을 밝혔다.

덧붙여, “문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우리 군민들이 문화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도 전했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도서명 **‘독서왕 김득신’ 위인일대기 만화서적**

저 자 천안시동남구문화원(글/그림: 손진효)

구 분 시리즈(지역위인)

장 르 인물

우리지역에서 태어난 위인 중에 한분 이신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손자이자, 문인(문장가)이신 김득신 선생의 일대기를 만화로 발간하여 지역위인의 생애와 업적을 지역민과 타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용 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도서명 **천안향토연구 9집**

저 자 임명순 외 다수의 향토사학자

구 분 시리즈

장 르 역사,문화,향토사 등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향토사학자들의 다양한 논문 등을 게재함. 매년 다른 주제로 고증을 통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다양한 향토사 관련된 글을 집필하여 그것을 종합적인 향토사 서적으로 엮음. 천안 유일의 전문 향토사서적으로 다방면으로 활용됨.

천안시서북구문화원



도서명 **천안을 담다 기억을 담다**

저 자 윤성희 이정우 윤평호 김학수 노준희

구 분 단행본

장 르 문화

2020년부터 기획사업으로 천안을 천안으로 만들고 있는 골목과 거리, 길을 살펴 천안의 길 풍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 그 세 번째로 <천안을 담다. 기억을 담다>는 천안을 터전으로 하는 시민들의 치열한 삶이 만들어낸 고운 풍경들이다. 켜켜이 쌓여온 지난한 세월 위에 지금을 살아내는 70만 천안시민들의 숨결이 더해진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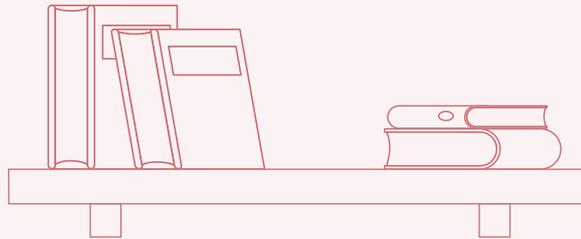
도서명 **천안군수 일기**

저 자 번역 권선길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조선조 광해군 당시 천안군수를 역임한 우곡 이유간(1550-1634)의 생활 일기이다. 1609년12월부터 1613년 3월까지 천안군수로 재직시 400여년 전의 관청 일상에 나타나는 관아보수와 석빙고관리, 진상품관리, 느티나무식재, 방문객 접대문화 등 우리고장 지방행정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번역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령문화원



도서명 **보령의 섬 지명**

저 자 황의호

구 분 단행본

장 르 기타

보령시 각 섬의 이름 및 섬 지역 지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책으로, 섬 이름의 유래와 그 어원을 섬지역 거주 주민과의 심층 인터뷰와 언어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도서명 **보령 녹도**

저 자 황의호

구 분 단행본

장 르 기타

보령시 오천면 소재 녹도에 관한 종합보고서.

녹도에 사람이 살기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섬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한 녹도 백서이다. 수십차례 녹도에 드나들며 마을 어르신들과의 구술 인터뷰를 바탕으로 섬 주민만이 알 수 있는 생생한 사료를 수집하였고 옛 행정자료와 언론 보도자료들을 추적하여 녹도에 관한 백과사전으로 엮었다.

공주문화원



도서명 공주 옷놀이

저 자 이걸재
구 분 단행본
장 르 향토

공주시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채록 조사된 공주시 관내의 옷놀이
에 대한 조사 내역 모음집이다.

옷놀이 7종 64가지, 윤점 2종 5가지 등 옷과 관련된 총 69가지
의 놀이문화의 결집체로 분야별 사진을 수록하여 이해하기 쉬
우며, 누구나 이 옷놀이의 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정리하
였다.

우리나라의 옷놀이가 놀이종목으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
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도서를 통해 우리 공주시가 우
리나라 최고의 옷놀이 본산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도서명 공주 금강

저 자 박광수
구 분 단행본
장 르 향토

공주 금강에 관한 책자이다. 금강 이름에 관련한 이야기, 금강
에 얽힌 설화, 《공산일기》로 본 공주금강, 금강수운, 금강의 5
강8정, 공주금강 8정에 관한 공주금강과 정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강교와 금강철교에 관한 역사와 함께 마암나
루, 석장나루, 오얏나루 등 공주금강 나루에 관련한 나루이야
기가 함께 담겨있다.

온양문화원



도서명 우리술 우리누룩

저 자 이상헌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술은 음식의 일부이며 발효의 기본으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지와 중국이나 일본의 술과의 차이점, 어떤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선조들이 남긴 문헌속 내용을 파악해 보고,
우리술의 오묘한 전통방식의 양조 이야기를 심도 있게 구성하
여 기록함.

도서명 공주의 인물 9집 - 공주의 미술인편

저 자 최기성 외
구 분 시리즈
장 르 인물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공
주의 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하신 인물을 선정해서 조명하는 향
토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해에는 아홉번째로, 공주 출신 한국화의 거장이신 청전 이
상범 선생의 50주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주의 미술인 편'을
발간하였다. 공주의 미술인 강신철, 구종서, 김기창, 김재배,
김재석, 신찬우, 안종호, 이정, 이경배, 이공권, 이남규, 정성원,
정술원, 조영동, 현광국, 황교영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도서명 근현대 공주, 그 터의 내력

저 자 장길수
구 분 단행본
장 르 향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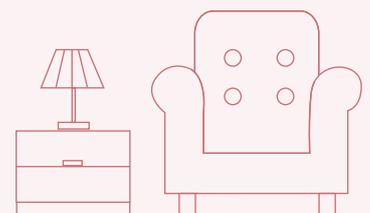
- 일제강점기의 관공서, 기관의 터 및 변천에 관한 이야기
- 일제강점기의 학교의 터 및 변천에 관한 이야기
- 일제강점기의 공주에 있었던 특이한 기관(관업원 등) 및 사업
이야기

도서명 공주 청송 심씨의 공주입향과 인물·유적

저 자 이해준 외
구 분 시리즈
장 르 인물, 향토

우리조상뿌리찾기 사업으로 반향의 도시 공주를 텃줄로 하는
저명한 성씨들을 발굴하여 그 문종의 뿌리를 알게 하는 사업으
로 올해는 청송 심씨에 대한 공주입향과 인물·유적에 대한 책
자이다.

공주 청송 심씨 청헌공파의 인물 배출, 청송 심씨 청헌공파
의 공주 입향, 공주에 남은 청송심씨가의 문화유산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서산문화원



도서명 **서산의 고지도(古地圖)와 지리지(地理志)**

저 자 서산문화원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내포의 중심 서산은 이름처럼 복되고 길한 여정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 사료(史料) 들 중 현존하는 고지도 14종과 지리지 14종의 자료를 한데 모아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서산지역의 특색과 자연환경을 한 눈으로 느껴볼 수 있다. 본 책자의 발간으로 향토사 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논산문화원



도서명 **논산의 마을신앙**

저 자 이필영, 남향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이 책은 마을신앙에 대한 관점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고 서술하였다. 「제1장 논산 마을신앙의 성격과 의의」에서는 논산 마을신앙과 관련한 각종 민속지를 분석·종합하여, 산신과 마을 어귀의 신령 그리고 용왕이 보살피는 마을, 마을신앙의 이중구조, 마을 신령을 모시는 제사 과정과 절차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논산의 마을신앙에서 가장 특징적 요소인 소금단지 화재막이와 무주고혼 제사를 소개하였다. 특히 마을을 불의에 의해 불행하게 만드는 도깨비불을 막기 위하여, 마을 뒷산이나 인근의 산에 소금단지를 묻는 풍습은 전국적으로도 논산에서 가장 성행한다. 대둔산 서북지역의 양촌 및 벌곡 일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민속현상이다. 무주고혼 제사도 다른 지역에서 간혹 찾아지고 있지만, 이곳 논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사례가 전승되고 있다. 「제2장 논산 마을신앙의 대표 사례」에서는 성동면 우곡리 산제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동제를 설명해 놓았다.

부여문화원



도서명 **부여의 문화재 컬러링북**

저 자 그림 미아(Mia), 사진 김성철

구 분 시리즈

장 르 문화

백제 고도 부여 지역의 문화재를 색연필로 그려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알고 집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편집된 컬러링북이다. 세계적 유물인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하여 23개의 문화재가 수록되어 있다. 불상, 석탑, 지석묘, 관아 건물, 누정, 초상화, 벽화 등 여러 분야의 문화재가 실려있는데 문화재별로 보기 그림, 밑그림 및 실물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공남지 연꽃 컬러링북』, 『부여의 나무 컬러링북』에 이어 3번째로 발행된 컬러링북이다.



서천문화원



도서명 **「고난의 길 보람의 길」**

저 자 문영자, 전대선, 구민숙, 김진설

구 분 단행본

장 르 인물

서천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기록으로 남겨 평범한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를 통해 지역문화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매년 어르신 합동 자서전을 발간하고 있다. 읍·면사무소 등에서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면이나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서전을 집필했다. ‘하나님께서 일궈주신 삶’ 김문규 어르신, ‘내 운명 내가 개척하며’ 김재현 어르신, ‘청초한 난꽃을 닮은 삶이여라’ 김채희 어르신, ‘주어진 삶을 개척하며 살아온 길’ 나기순 어르신,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 노협래 어르신, ‘바름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인생’ 박명규 어르신, ‘건강·화목·성실’가훈 아래 삶을 살다’ 유건호 어르신, ‘농민을 위한 농민으로 살다’ 최명식 어르신,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하창호 어르신, ‘산업화 최전선에서 땀 흘리다’ 함광홍 어르신까지 총 10편의 자서전을 모아 서천의 풀뿌리 인물 합동자서전인 『고난의 길 보람의 길』에 담았다.



도서명 2022 당진향토문화

저 자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남기은 소장, 김남석 부소장,
신양웅·윤성의·이종미·장수덕·고대영 연구위원, 이학중
향토사학자

구 분 시리즈

장 르 역사

당진 지역 향토사 및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지의 연구논문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당진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발간.

- 정묘호란의 전향과 남이흥 장군 순국 후 나라에서 충장사·충민사 건립내역/ 남기은
- 강릉김씨 영해부원군파 묘역의 역사적 의미와 선양/ 김남석
- 13진 도총대장(13陣都總大將) 정주원(鄭周源)/ 신양웅
- 무가(巫歌) 또는 무경(巫經)의 변용(變容)/ 윤성의
- 당진의 전설 - 송악읍 지명에 깃든 이야기/ 이종미
- 청일전쟁이 내포 동학농민전쟁에 끼친 영향/ 장수덕
- 당진의 농기문화와 보존/ 고대영
- 면천면 대치리 장승과 장승제의 가치/ 이학중

도서명 이의무의 연헌잡고

저 자 이의무(국역·충남대학교 이재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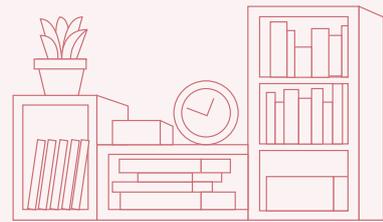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당진시 송산면에 묘와 신도비가 있는 이의무는 조선 전기 성종 조의 신진사료로서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문학사에 끼친 영향이 큰 인물이다.

이의무의 유고(遺稿)는 평소 시문(詩文)을 모아 두지 않아 거의 산일되었으나, 셋째 아들인 이행이 부(賦) 9편, 잡저(雜著) 8편, 잡시(雜詩) 483편을 모아 두었고 다섯째 아들인 이미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중요한 내용을 선집한 유고를 3권 1책으로 만들었으며 이후 6대손 이광하가 소장하고 있던 초간본에 자신의 발문을 붙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번 이의무의 문집 《연헌잡고》 완역은 지역 문화사뿐만 아니라 한문학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도서명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이야기

저 자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남기은 소장, 김남석 부소장,
노용민·박찬렬·윤성의·이종미·장수덕 연구위원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이야기’를 주제로 당진문화원 산하 향토연구기관인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에서 사업을 담당하여 구술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진 특산물과 관련된 구술자 8인을 모집하여 고구마, 파리고추, 야콘, 두견주, 사과, 속세, 실치, 짚가리술로 당진 특산물과 관련된 지역 농촌의 마을 변화와 현대 농업의 변화과정 및 나아갈 길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특산물의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책자를 발간하면서 당진 지역 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계승하는 방법 등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소중한 향토사 자료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꾸준한 연구와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도서명 남이흥 장군 학술세미나

저 자 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홍제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기은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장, 고대영 당진시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최재근 문화예술학박사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남이흥 장군 학술세미나는 우리 고장 충절의 표상이신 남이흥 장군을 재조명하고 장군의 유물과 유적, 충장공가의 민속의례와 전통 그리고 더 나아가 충장사를 무인종가 호연지기 체험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조발제: 충장공 남이흥의 생애와 정신/ 이해준
- 제1주제: 충장공가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 홍제연
- 제2주제: 충장공 남이흥 가문의 민속의례와 전통/ 남기은
- 제3주제: 충장공 남이흥 유적의 정비 및 활용방안 검토/ 고대영
- 제4주제: 충장공 정신의 선양을 위한 무예체험 교육 및 문화 활용 자원화 방안/ 최재근

청양문화원



도서명 **청양의 효열전**

저 자 김현락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청양 군내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효와 정렬, 부모에게 효행을 다하고 절개를 지킨 옛 어른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하늘을 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킨 간절함입니다.

『청양의 효열전』을 읽으며 우리 또한 이러한 효행의 마음을 길이 보존하고 계승하기를 바라는 조그만 소망이기도 합니다. 온 고이그신의 교훈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서명 **청양의 산성 기초현황조사(I)**

저 자 청양문화원
구 분 시리즈
장 르 문화

충청남도 청양군 지역에 분포하는 산성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이며 청양문화원에서는 청양지역 내 산성의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중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사를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에 의뢰하였다.

청양지역의 산성에 대한 조사는 1993년에 이루어진 청양군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유적에 대한 현황조사는 이후 체계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서 기존에 지표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청양지역 내 16개소의 산성 중에서 성벽의 현황이 잘 남아있는 9개소의 중요산성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유구현황을 파악하는 기초현황조사를 기획하였다.

도서명 **칠갑문화 32호**

저 자 청양문화원
구 분 시리즈
장 르 문화

청양지역의 필진들이 시, 논설, 칼럼, 수필, 콩트, 기행문, 향토사료, 연구논문 등에 관한 글을 한해 동안 문화원에서 했던 사신들을 모아 놓고 해마다 칠갑문화를 발간하고 있다.

청양의 문화를 보존, 개승하는 발간지이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의 탐구와 더불어 현대문화의 개발과 발전적 활동을 위해 여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칠갑문화도 그에 관한 사업이다.

홍성문화원



도서명 **지산집(전5권)**

저 자 지산 김복한
구 분 시리즈 전 5권
장 르 역사

지산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은 홍성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왕세자를 가르치는 스승이었다가 의병의 길을 의롭게 걸어간 지역의 큰 어른이자 유학자이며 구국의 신념으로 파리장서운동을 이끈 위대한 인물이다.

지산집(志山集)은 김복한의 시문집으로, 김복한의 제자 신해철 등이 편집하여 1947년에, 연보는 1952년에 간행되었고, 연보 권말에 김노동의 발문이 있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총 5권 1세트로 제작된 이 문집은, 홍성문화원에서 지난해 번역을 완료하여 올해 발간하는 책으로 앞으로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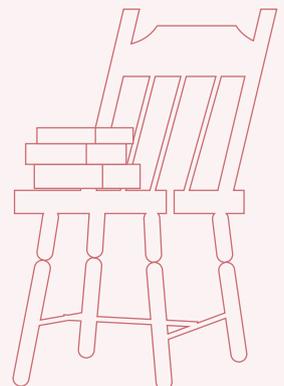
도서명 **홍성의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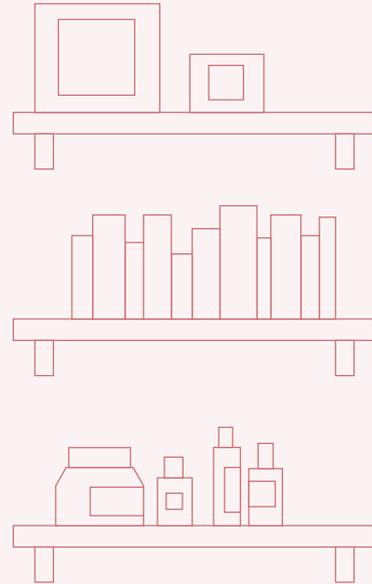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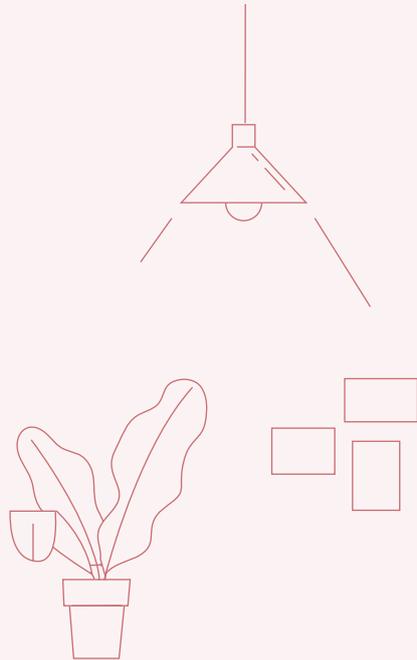
저 자 김정헌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홍성의 주변 곳곳에 있는 다양한 고개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작가 특유의 편한 문체로 풀어낸 향토문화 스토리텔링 단행본. 고개에 전해오는 다양한 이야기가 첨부되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다.

홍성의 진산 백월산 주변의 고개, 남산과 보개산, 서해명산 오서산, 용봉산은 물론이고 최영 장군과 성삼문의 님이 서린 닭제산, 철마산, 홍동의 초롱산, 광천의 지기산, 서부의 청룡산 주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홍성의 곳곳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발굴하고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기위한 각고의 노력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예산문화원



도서명 『조선왕조실록』 속의 예산

저 자 이해준
구 분 단행본
장 르 역사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예산지역(예산현, 덕산현, 대흥현)에 관한 내용을 모두 추출하여 이 내용을 9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음.

이들 9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세종 지리지」의 예산 기록
2. 예산의 사회 경제상
3. 예산의 저명 인물
4. 충효열 인물들
5. 예산의 지방관 모습, 일화들
6. 역사 사건과 일화들
7. 문화유적 관련 기록들
8. 기이한 일화와 재해
9. 한말의 역사적 사건과 예산

이와같이 분류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검색할 때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있음.

태안문화원



도서명 태안군 소원면 지역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저 자 이필영, 이재은
구 분 단행본
장 르 민속문화

‘태안군 소원면 지역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은 2022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사업으로 충청남도, 태안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태안군 내 각 읍·면의 민속신앙을 집대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진행된 연차사업의 일환으로 근흥면, 고남면, 안면읍, 남면, 태안읍에 이어 여섯 번째 성과물이다.

태안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독특한 생활문화를 다양하게 간직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삶에 함께해왔던 민속신앙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조사하고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22 충남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총면적 (㎡)	원 장	사무국장	직 원	전화/팩스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10호	87. 02.		회 장 유환동	사무처장 조남민	김중호 주혜원	T.635-9102 F.635-9104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29	58.04.20	487	김윤식	곽승일	이 슬 손영주	T.564-1022 F.563-1021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63.05.10	275	이종석	신광식	문경희 최은지	T.581-2101 F.582-1725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동1길 66(반죽동)	54.12.16	2,160	이일주	현대수	양문숙 정지은 김선아	T.852-9005 F.856-6746
보령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	56.03.02	739	황익호	한흥호	김명희	T.934-3061 F.936-3071
온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57.05.10	824.2	정종호	김형기	이지윤 박현미 박상규	T.545-2222 F.542-4444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57.06.15	1,884	편세환	김영철	김예지 이연주 김혜린이미정	T.669-5050 F.669-4567
논산문화원	논산시 관촉로 113-16	57.11.14	1,757	권선옥	이준창	전현희 고승연 김형태 김창숙	T.732-2395 F.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55.09.01	1,130	김윤숙	강대원	이아름 차승훈 모선호 김아담	T.354-2367 357-2367 F.356-3850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67.11.18	1,203	장 호	전병만	김소연 차주희 강근정	T.754-2724 F.754-661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54.03.01	3,432	정찬국	김인권	이미영 박진수 김미완 고수연	T.835-3318 F.833-3318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65.01.26	4,272	최명규	박은희	정혜옥 김정환	T.953-0123 F.953-0133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55.04.17	945	임호빈	복은주	차승원 김 진 전미진	T.943-4774 943-4775 F.944-1030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54.03.31	1,995	유환동	조남민	김숙희 모태희 이경진	T.632-3613 F.633-1199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55.10.15	2,530	김종옥	박세진	이충환 이수영 장혜민 홍성희 장화수 이다연 박지혜 최유주	T.335-2441 332-2441 F.334-43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90.06.05	3,507	고종남	정지수	김유미 안은선 조지현 안상은 전지현	T.674-2192 F.675-6968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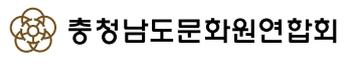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0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